

특집

한국전쟁기 미군이 노획한 북한노획문서 중 북한신문 자료의 유형과 특징

정병준 (이화여대)

국문요약

한국전쟁기 미군이 전장에서 노획한 ‘북한노획문서철’은 미국립문서기록관리청 문서군(Record Group) 242 <해외노획문서 콜렉션(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속에 포함되어 있다. 북한노획문서 중에는 약 120여 종을 상회하는 북한신문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북한노획문서 중 북한신문 자료는 첫째 1945~1953년간 북한에서 간행된 신문류, 둘째 1950~1951년간 한국전쟁 북한점령기 남한에서 간행된 신문류, 셋째 한국전쟁기 북한군 군사신문류, 넷째 기타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북한신문은 조선로동당 관련 신문, 인민위원회 관련 신문, 로동당·인민위원회 통합신문, 각 직종·부문 신문, 소련 발행 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한점령기 신문은 조선로동당 관련 신문, 인민위원회 관련 신문, 빨치산 신문으로 구분된다. 북한 군사신문은 사단급·군단급 부대가 간행한 전선신문 등이 주종을 이루며, 기타 신문에는 남한, 만주 등에서 간행된 일부 신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북한신문자료는 희귀, 유일본으로 다종·다양하며, 비밀정보의 성격이 강한 반면 파편적이며 비체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주제어 : 북한노획문서, 미국립문서기록관리청, 문서군 242, 방선주, 북한신문

I. 머리말

한국전쟁기 미군이 전장에서 노획한 소위 ‘북한노획문서철’은 미군의 군사작전에 즉각적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되었고, 전쟁이 종료된 후 미국으로 이관되어 현재는 미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에 보관되어 있으며, 문서군(Record Group) 242 〈해외노획문서 콜렉션(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속에 포함되어 있다.

미군이 북한으로부터 노획한 이들 북한노획문서는 구(舊)노획문서와 신(新)노획문서로 구분된다. 구노획문서는 1977년 공개되었는데, SA 2005에서 SA 2013까지 총 1,216상자, 문서 7,235건, 약 158만 장의 문서와 책자로 구성되어 있다. 신노획문서(혹은 선별노획문서)는 1990년대 초반 방선주에 의해 공개되었으며, 200001~208072번 사이의 문서 5,822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노획문서와 신노획문서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방선주의 탁월한 선행연구와 목록정리가 있다.¹⁾ 방선주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노획문서(구노획문서) 약 155만 장 중 외국어문서 약 30만 장을 제외하면 한국어 문서는 약 125만 장 상당이다. 한국어 문서는 필사문서와 인쇄문서로 양분되는데, 필사문서는 30~40만 장을 넘지 못하고, 인쇄문서는 책, 잡지, 신문, 팜플렛 선전전단, 정부기관 전달문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1) 방선주, 「노획 북한필사문서 해제 (1)」 『아시아문화』 창간호 (1986); 방선주, 「미국 국립공문서관 소장 RG 242 내 〈선별노획문서〉 조사연구」, 『미국소재 한국사자료 조사보고Ⅲ: NARA 소장 RG 242 〈선별노획문서〉 외』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2). 이 두 글은 방선주, 『방선주저작집』 제2권 (서울: 선인, 2018)에 재수록되었다.

필사문서 중에는 입대(入隊)·입당(入黨)·입맹(入盟) 지원서철, 학습잡기장(學習雜記帳) 등이 약 즉 15~20만 장 정도이다. 이외 외무성의 외국인기류부(外國人寄留簿)(화교), 공장경리문서, 자서전이 딸린 이력서, 평산군(平山郡) 재판기록, 인제군 당정문서(약 5만 장), 선천군 민청관계문서(약 1만3천 장) 등이 필사문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방선주는 여러 해에 걸쳐 북한노획문서(구노획문서)를 적어도 3차례 이상 열독한 끝에 신노획문서(선별노획문서)가 사장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1990년대 초반 이를 공개하게 되었다.

이렇게 공개된 북한노획문서(구노획문서·신노획문서)에는 다양한 북한 생산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중요한 연대기 자료인 신문자료가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다.²⁾ 북한노획문서에 포함된 북한신문들을 그 중요성과 희귀성·유일성·원본성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분산적이고 파편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전체적인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 글은 북한노획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북한신문 자료의 전반적인 현황과 신문의 유형, 그 특징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³⁾

2) 현재 국내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림대 아시아문제연구소 등에서 북한노획문서를 온라인, 자료집, 소장자료로 공개하고 있다. 국내의 북한노획문서 소장현황, 자료집 간행 상황, 관련 해제 등에 대해서는 정병준, 「한국전쟁기 미군이 노획한 '북한노획문서'의 구성과 특징」 『이화사학연구』 62 (2021)을 참조.

3) 이 글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토대사업의 일환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한국전쟁기 미군노획문서철 중 북한신문의 수집, 해제, DB구축사업팀」에서 수행한 작업결과를 총괄한 것이다.

II. 북한노획문서 중 북한신문 자료의 조사 및 신문목록

북한노획문서 중 산재해 있는 북한신문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에서 입수 가능한 자료목록, 수집자료목록 등의 자료들을 검색했다. 여기에는 다음의 자료 및 목록들이 활용되었다.

- The National Archives, 1977, 『문서군 242, 1941년 이래 국립문서보관소 노획외국문서 컬렉션, 주석이 달린 목록, 주한미군이 노획한 기록물 (Record Group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1941-, Annotated Lists: Records Seized by U.S. Military Forces in Korea)』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rvice, 8238th Army Unit]
- 방선주, 「미국 국립공문서관 소장 RG 242 내 〈선별노획문서〉 조사연구」, 『미국소재 한국사자료 조사보고Ⅲ : NARA 소장 RG 242 〈선별노획문서〉 외』,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2)
-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목록집』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6)
- 국토통일원, 『6·25 당시 노획한 북한자료 마이크로필름 목록』 (서울: 국토통일원, 1987)
-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빨치산 자료집』 제6-7권 (신문편) (춘천: 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 방선주, 『북한논저목록』,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춘천: 아시아문화연구소, 2003)
- 정병준 소장 북한노획문서 중 북한신문

이 목록·자료에 기초해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국사편찬위원회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를 추가 정리함으로써 약 160여 종의 북한신문 자료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후 실제 이 신문들의 시기적 범위, 분량, 실

재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수차례 NARA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2018년 겨울 NARA 방문조사는 미연방정부의 섯다운으로 실패했고, 2019년 여름과 2020년 초 NARA 방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잠정적으로 집계한 북한노획문서 중 북한신문의 목록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신문 자료가 아닌 자료들, 예를 들어 북한 잡지, 북한군 명령서, 북한 문서, 남한 신문, 중국인민지원군 신문 등을 확인해 배제한 결과 최종적으로는 약 120여 종의 북한신문 자료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 목록과 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북한노획문서 중 북한신문 개관

제호	발행주체	일자	노획문서번호 (SA, no)
강북로동신문	조선로동당 북강원도당위원회	1951.2.10.	no,202947
강북인민보	강원도인민위원회	1951.4.17.	SA2012-8-30
강북일보	[강원도당·인민위]	1952.2.2, 2.3, 3.12, 3.14, 3.16.	SA2012-8-97
강원로동신문	북조선로동당 강원도위원회	1947.4.17~20, 4.22, 4.23, 5.4, 5.5, 5.7, 7.15, 7.17, 8.15, 8.27, 8.28, 9.4, 9.5, 9.9, 9.19~21, 9.23~26, 10.8, 10.12, 10.14~18, 10.23, 1950.7.2., 7.5~8, 7.10, 7.11, 7.13, 7.15, 7.16, 7.18~23, 7.25.	SA2007-9-Misc SA2007-9-10
강원인민보	강원도인민위원회	1947.3.29, 4.26, 4.29, 5.19, 5.24, 5.29, 6.4~6, 6.12, 6.14, 6.21, 6.24~26, 7.1~4, 7.10~13, 7.17~19, 7.22~25, 7.27, 7.29~31, 8.13, 8.27, 8.28, 10.11, 10.14, 10.15, 10.18, 11.16, 11.18, 11.20~23, 11.25~29, 12.2, 12.5, 12.6, 12.9, 12.19, 12.21, 12.26, 12.27. 1950.3.12, 3.18, 3.21, 4.5.	SA2007-9-9 SA2007-9-10 SA2007-9-11
강철	851군부대(7사단)	1951.2.7, 2.9, 2.27, 1951.3.	no,202712
	거제도포로수용소	1952.11.23.	no,206717
개벽신보	개벽신보사(북조선 천도교청우당)	1950.4.14, 4.15, 5.25, 5.25.	SA2009-9-123
개성신문	개성신문사	1952.5.9, 5.13, 5.19, 5.21, 5.23, 5.25, 5.27, 5.29, 5.30, 6.4, 9.2, 9.4, 9.10, 9.12, 9.14,	no,205974 SA2013-1-40

제호	발행주체	일자	노획문서번호 (SA, no)
		9.18, 9.20, 10.6, 10.8, 10.10, 10.12, 11.1, 11.3, 11.5, 12.17, 12.19, 12.29, 1953.6.16. 1953.9~12.	SA2013-2-19 SA2013-1-193
경남도동신문	경남도동신문사	1950.12.7. 1951.1.18, 4.20, 4.27, 5.4, 5.11, 5.25, 6.8, 6.22, 7.10, 7.17, 7.22, 7.25, 7.26, 7.27, 8.1, 8.12, 8.13, 8.18, 8.22, 8.28, 9.6, 9.18, 10.2, 10.9, 10.26, 12.14.	SA2012-8-29 SA2012-6-28
경남빨찌산	경남빨찌산사	1951.5.5, 5.30, 6.10, 6.30, 7.25, 9.25, 11.24, 날짜미상	SA2012-8-106
경북로동신문	경북로동신문사	1951.9.30, 11.7, 11.23, 12.12, 12.18, 12.20, 12.일자미상, 12.31, 1952.1.1, 1.21.	SA2012-8-29
공고한평화를 위하여인민민주주의를위하여	코민포름(공산당및로룡당들의보도국)	1950.6.30, 7.18. 1951.8.10, 1952.3.7, 8.22, 9.12, 9.19, 1953.3.27.	no,201445 SA2012-6-100? SA2013-1-76 SA2013-2-18,1
공보	최고인민회의	1952.5.31.	SA2013-1-75, SA2012-8-131
광주로동신문	광주로동신문사	1950.12.30.	SA2012-8-29
교원신문	교육성및북조선교원문화일군직업동맹	1949.10~1950.4. 1951.7.7.	SA2007-9-5, SA2012-5-205
교통신문	교통성 정치국	1951.9.8.	SA2013-1-63
근위	655군부대(6사단)	1951.8.15, 8.15(호외), 8.16, 8.26, 8.29, 8.31, 9.9, 9.10, 9.15, 9.25.	no,204506, SA2012-5-97?
노동자신문	노동자신문사(남한)	1946.10.26, 11.7, 1947.4.19.	SA2007
노력자	노력자사(남로당지하신문)	1949.1.15. 9.1, 9.25, 9.30, 10.15.	SA2007-9-8 SA2007-9- SA2012-8-?
농민신문(북조선농민신문)	북조선농민동맹	1947.4.12, 7.20, 7.29, 8.19, 8.20, 8.22, 8.23, 8.24, 8.29, 9.2, 9.4, 9.5, 9.7, 9.12, 9.13, 9.16, 9.21, 9.23~28, 10.5, 10.6, 10.15, 10.26, 11.3, 11.5, 11.8, 11.27. 1950.7.1, 7.4~7.7, 7.18~7.19, 7.21~23, 7.25~7.30. 1951.2.1, 2.2, 2.3, 2.4, 2.6, 2.7, 2.8, 2.9, 2.10, 2.21, 6.25. 1952.1.3, 1.6, 5.17, 6.24, 7.3, 7.18, 7.9, 8.9, 8.12, 8.18, 8.27, 9.1, 9.12, 9.24, 9.30, 10.3, 10.8, 10.18, 10.21, 10.31, 11.3, 11.6, 11.7,	no,203836 no,205444 SA2007-9-1 SA2007-9-13 SA2012-5-1 SA2013-1-38 SA2013-2-5 SA2013-2-5

제호	발행주체	일자	노획문서번호 (SA, no)
		11,9, 11,12, 11,21, 11,30, 12,3, 12,15, 1953.1,3, 1,6, 1,9, 1,12, 1,15, 1,21, 2,3, 2,8, 2,23, 3,3, 3,9, 5,24, 6,3, 6,25, 7,3, 7,6, 7,8, 8,6, 8,9, 8,27, 9,2, 9,27.	
농민신문	농민위원회	1951.4.10, 4,25, 5,10, 5,20, 6,1, 6,10, 6,20, 7,5, 7,15, 8,5.	no.205423
뉴스	경남로동신문사	1951.5.10.	SA2012-8-115
덕유산승리의길	덕유산승리의길사 [조선인민유격대남 부중대92사단]	1951.10.20.	
독립	독립신문사(미주)	1950.12.13, 12,20.	SA2012-7-40
돌진	오대산정치부·235 군부대(2사단)	1951.1.31.(2개 호), 6,11.	no.203484 no.202584
돌진	민주청년동맹원위 원회(거제도)	일자미상	no.206434
東北朝鮮人民 報	중국공산당 연변지 방위원회	1950.12,6, 12,7, 12,10, 12,12, 12,21, 12,23.	no.202270 SA2010-2-64
동지의복수를 위하여!	259군부대(3군단)	1951.5.	no.203951
로동신문	로동신문사(조선로 동당)	1948~1953년, 1950.6.28.~.30, 7,1~4, 7,6, 7,7 7,9, 7,10, 7,12, 7,13, 7,17, 7,20, 7,21, 7,24~27, 7,29~31, 8,1, 8,2, 8,9, 8,11, 8,12, 8,14~21, 8,25, 8,26, 8,28, 8,31, 9,1, 9,7, 9,10, 9,14, 9,15, 9,18, 9,22~9,29, 10,1, 10,2, 12,6, 12,10, 12,14, 12,16, 1951.2,2, 2,15, 2,17, 2,19. 4,2, 5,8, 5,10, 5,11, 1952.4,30, 5,19, 5,31, 7,25, 7,26, 7,27, 8,4, 9,20, 9,22, 1953.2,25, 3,14, 4,2, 4,4, 5,28, 1953.10,12.	nos.200273, 200347, 200415, 200535, 200536, 200635, 200647, 200650, 200651, 200696, 200702, 200709, 200772, 201108, 201443, 201445, 201542, 202631, 202738, 202739, 203328, 203411, 205800, 206221, 207082, 207177, 207263, 207491, 207878 SA2007-9-18 SA2013-1-33 SA2013-2-45
로동자	조선직업총동맹	1950.3,21, 3,24, 3,25.	SA2012-5-230

제호	발행주체	일자	노획문서번호 (SA, no)
로동자신문	북조선직업총동맹	1947.4.12, 4.17, 4.18, 4.23, 6.8, 6.11, 6.12, 6.13, 6.14, 6.15, 6.17, 6.19, 6.20, 6.25, 6.27, 6.28, 6.29. 7.5, 7.6, 7.10, 7.11, 7.12, 7.13, 7.31, 8.1, 8.2, 8.3, 8.5, 8.6, 8.7, 8.8, 8.9, 8.10, 8.12, 8.15, 9.11, 11.1, 11.8, 1948.4.15.	SA2007-9-3
로령로동신문	로령로동신문사	1951.2.25.	
만세보	만세보사(남한)	1947.8.11.	SA2007-
묘향산돌진	민주동맹원묘향산지도위원회(거제도포로)	1952.9.25.	no.206457
묘향산전진	조선로동당원묘향산지도위원회(거제도)	1952.10.15, 9.30.	no.206431
무등산빨찌산	무등산빨찌산사	1951.2.24.	SA2012-8-106
문화신문	문화신문사(남한)	1947.7.27.	SA2007
민주조선	민주조선사(내각기관지)	1947~1949년, 1950.7.5~7, 7.10, 7.12, 7.16, 7.19, 7.20, 7.24, 8.7~8.14, 8.17, 8.26~31, 9.1, 9.4, 9.7, 9.9, 9.13, 9.17~9.19, 9.21, 9.22, 9.25. 1951.1.6, 2.11, 12.14, 12.16, 1952.1.13, 2.9, 2.24, 3.2, 3.3, 3.5, 3.7, 3.8, 3.10, 3.15, 3.29, 3.4, 4.15, 9.15, 9.20, 10.13, 10.14, 10.27, 1953.2.5, 3.24, 3.26, 3.28, 4.1, 5.17, 6.1, 7.4~7.7, 8.15, 8.23, 10.27, 11.9, 11.18, 11.20, 12.4, 12.6, 12.13~16, 12.21. 1954.2.16, 2.20, 2.22, 2.25, 3.1.	nos,200647, 200943, 200960, 201103, 201297, 201445, 201544, 201545, 202806, 205326, 205328, 205537, 205538, 205664, 205730, 206671, 206933, 206936, 206993, 207263, 207486, 207736, 207852, 207879, 207880, SA2007-9-16 SA2010-2-68 SA2013-1-32 SA2013-1-32 SA2013-2-44.1
민주청년	조선민주청년동맹	1947.9.4, 9.13, 10.14, 10.16, 10.18, 10.23, 10.24, 1948.2.17, 2.19, 2.27, 3.1, 3.3~5, 3.8, 3.17, 3.22, 3.23, 3.26, 4.1, 4.8, 4.10, 4.12, 4.15,	nos, 201445, 201977, 202947, 203360, 204873, 205731, 205731,

제호	발행주체	일자	노획문서번호 (SA, no)
		4,22, 4,23, 5,22. 1950.3.17, 3,25, 8,11, 12,17. 1951.4.6, 4,10, 8,18, 8,22, 8,25, 9.1~3, 9,14, 9,16, 9,18, 9,20, 9,26~29, 10.1~4, 10,6, 10,7, 10,9, 10,11, 10,16, 11,12, 11,24, 12,8, 12,14. 1952.3.5, 3,21, 5,4, 6,18, 7,9, 9,18, 9,23, 9,25, 10,25, 10,27, 11,4, 12,2, 12,21, 12,27, 12,31. 1953.1.1, 1,11, 1,20, 2,1, 2,7, 2,17~19, 3,11, 3,15, 3,17~19, 3,21, 7,3, 7,30, 8,7, 8,15, 8,20.	207756, SA2007-9-2 SA2012-6-104 SA2014-30
	병단맹원지도위원회 (거제도포로)	일자미상(제32호)	no,206235
민청생활	327군부대(5군단)	1951.2.27.	no,202701
반미구국	반미구국투쟁동맹	1953.4.20, 5.1, 5.25	SA2013-2-87
백운로동신문	백운로동신문사	1951.8.1, 9.1	SA2012-8-29
별	별사(남로당지하지)	1949.9.7, 9,28, 10,5, 10,12, 10,19.	SA2007-9-1
보도	327군부대(5군단)	1951.4.24.(2개호), 5,12.	no,203318
보위	내무성 문화국	1950.6.27.~29, 7,2, 7,11, 7,15, 7,21~23, 7,25, 7,29, 7,30, 8,1~20.	nos,200347 200648, 200650,
보위(해방지구판)	내무성 문화국	1950.8.5, 8,7, 8,9, 8,11, 8,13, 8,15, 8,17, 8,19, 8,21, 8,23, 8,25, 8,27, 8,29, 8,31, 9,2, 9,4, 9,6, 9,8~10, 9,12.	201784 SA2007-9-9 SA2009-7-119
복수의 불길	685군부대(32사단)	1951.4.20.	no,203359
북조선농민신문	북조선농민동맹	1947.4.12.	SA2007-9-1
불갑산빨찌산	불갑산빨찌산사	1951.1.28, 2,8.	SA2012-8-110 SA2012-8-112
불길	불길사(조선인민유격대불길사단)	1951.7.1, 9,25.	SA2012-8-106
붉은별	경남지구인민유격대7군단	1951.4.15, 5,5(2개호), 5,25, 8,25.	SA2012-8-104
빨찌산	전남빨찌산사	1950.11.7, 1951.4.10, 6,15, 8,15, 9,25.	SA2012-8-105
	전북빨찌산사	1951.1.1, 1,8, 1,18.	SA2012-8-106 SA2012-8-108
선봉	양산군당	1950.12.1.	no,202024

제호	발행주체	일자	노획문서번호 (SA, no)
선전	788군부대(15사단)	[1951.4.23. 노획]	no,202834
소보	259군부대(3군단)	1951.1.1, 1.13, 1.16, 2.27, 3.1, 3.17, 3.23, 3.26, 3.28, 3.30.	no,202830
속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1950.11.12.~14.	SA2010-3-62
	825군부대(12사단)	1951.4.5.(2개호), 4.16.	no,203357 no,202644
	조선인민유격대 전 남지대	1951.11.14.	SA2012-8-115 SA2012-8-116
승리	695군부대	1950.12.10.	
승리를위하여	조선인민군 전선신문	1950.7.11., 7.13~15, 7.18~20, 7.25, 7.28~30, 8.1, 8.3~5, 8.10, 8.12~20, 8.23~8.31, 9.1, 9.3, 9.4~9.8, 9.10~12. 1951.4.25., 4.27~29, 5.1, 5.3, 5.5, 5.9~11, 8.30, 9.3, 9.10, 9.14,	nos,200295, 200415, 200464, 200536, 200636, 200647, 200650, 200709, 200943, 201445, 201519, 203329, 203358, 204222, 204234 SA2007-9-7 SA2010-2-66 SA2012-5-133
	조선인민군 전선문 화훈련국	1950.8.10, 8.20. [사진화보]	no,200778
	15사단 정치부	1951.1.7.	no,202830
	오락산(1군단예하 연대)	1951.1.24, 1.27, 2.9, 2.11, 2.14, 2.17, 2.20, 2.23, 2.26, 3.1, 3.3, 3.7, 3.10, 3.13, 3.16, 4.4.	SA2012-6-157
	7보사2연대 문화부	1950.8.7.	
	승리으로	775군부대 정치부	1951.9.9.
승리의길	조선인민유격대 남 부군	1951.2.15, 2.28, 3.20, 4.26, 5.5, 6.10, 7.5, 8.5, 8.25, 9.6, 9.16, 9.26, 10.6, 10.11, 10.21, 10.28, 11.3, 11.10, 11.11, 11.17, 11.23, 12.28, 1952.1.26, 2.20, 3.21, 4.13, 4.23, 4.29, 5.5, 5.26, 6.5, 6.23, 7.6, 7.8, 7.17, 7.26, 8.10, 8.20, 9.8.	SA2013-2-29
	승리일보사(대구)	1950.12.27, 1951.1.20, 1952.1.31.	SA2012-8-100
시사간보 (簡報)	327군부대(5군단) 정치부	1951.1.18, 2.9, 2.12.	no,232713 no,202710

제호	발행주체	일자	노획문서번호 (SA, no)
신념	백두산별위원회(거제도)	1952.9.5, 9.18, 9.19.	no.206787
쏘베트신보	쏘련대외문화협회 재평양문화회관	1948~1949년, 1950.4.5, 7.1, 7.6, 7.8, 7.11, 7.13, 7.16, 7.20, 7.23, 7.29, 8.2, 8.11, 8.19, 8.23, 8.26, 8.30, 1951.8.17, 8.22, 8.25, 8.27, 9.1, 9.5, 9.10, 9.14, 9.19, 9.22, 10.6, 10.31. 1952.2.9, 2.16, 5.21, 6.28, 7.8, 8.2, 9.18, 9.20, 9.6, 10.6, 10.8, 10.16, 10.19, 10.22, 10.28, 11.1, 11.7, 12.4. 1953.1.22, 2.1, 2.7, 2.12, 5.28.	nos.200536, 200645, 201445 204232, 206128 207486 SA2007-9-14 SA2012-5-1 SA2012-5-100 SA2013-1-37 SA2013-2-28
안동	825군부대(12사단) 정치부	1951.4.17, 4.22, 4.26.	no.203304 no.203325
앞으로	동부지구당/동해남 부지구당	1951.7.5, 7.25, 12.20, 12.31.	no.202022
	락동강발행소	1951.3.24.	no.202580
옳다	북조선공산당 함남 도당	1945.12~1946.7.	러시아(기광서)
유격전선	제3유격지대(경북)	1951.2.13, 2.17, 2.21, 2.22, 2.27, 3.4, 3.7, 3.8, 12.11, 12.25, 일자미상	no.202021
	[충남유격대]	1951.10.8	
	조선빨찌산 독립 지대	1951.4. 일자미상	
	929빨찌산병단(빨 찌산독립6지대)	1950.12.15, 12.21.	
유치빨치산	조선인민유격대 전 남 장흥지구사령부	1951.7.1	SA2012-8-111
인민을위하여	256군부대	1951.8.7.	SA2012-8-95
인민의아들	276군부대(4군단)	1951.5.11.	no.203495
	조선인민군 병사신 문	1952.1.3, 1.5, 1.7, 1.9, 1.11, 1.13, 1.15, 1.17, 1.19, 1.21, 1.25, 1.27, 1.31, 2.2, 2.4, 2.8, 2.10, 2.14, 2.18, 2.20, 2.21, 2.23, 2.25, 2.27, 2.29, 3.6, 3.10, 3.12, 3.20, 3.22, 3.26, 3.28, 4.3, 3.17, 4.19, 4.23, 4.25, 4.29, 5.3. 1952.2.4, 3.2, 3.8, 3.12, 3.14, 3.16, 3.30, 4.11, 4.13, 4.21, 4.27, 5.1, 5.7, 5.11.	no.206149 SA2013-1-04

제호	발행주체	일자	노획문서번호 (SA, no)
인천인민보	인천시임시인민위원회	1950.7.8.	SA2009-7-200
자유황해	황해도 인민위원회	1947.3.30, 4.2, 9.2, 9.3.	SA2007-9-11
전국농민신문	전국농민총연맹(남한)	1946.10.18, 12.13, 1947.1.30, 4.12, 7.20	SA2007-
전남도동신문	전남도동신문사 [로동당 전남도당]	1951.4.28, 11.6, 1952.2.8.	SA2012-8-29
전남빨찌산	전남빨찌산사	1950.11.7, 1951.4.10, 6.15, 8.15, 9.25	SA2012-8-106
전남인민보	전남인민보사	1950.8.8, 9.5, 9.20.	no.200332 SA2012-8-102
전북도동신문	전북도동신문사	1951.2.25, 9.20, 9.25, 10.31, 11.10, 11.25, 12.5.	SA2012-8-29
전북민주녀성	전북민주녀성사	1951.9.20.	SA2012-8-95
전북인민보	전북인민보사	1951.10.20, 10.31.	SA2012-8-101
전위	327군부대(5군단) 정치부	1951.4.1, 4.5, 5.10, 8.24, 8.29, 9.16	no.203362 no.204507 SA2012-5-130
전진	14보련 참모부	1951.2.6.	SA2010-3-75
	묘향산지도위원회 (거제도)	1952.9.15, 9.30.	no.206431 no.206435
전투문학	조선빨찌산독립제6 지대 정치부선전부	1951.6.3.	SA2012-8-113
전투소보	7보사 정치부	1950.12.4.	SA2011-8-1
	미상	1950.6.16.	SA2008-10-156
전투속보	655군부대(6사단) 정치부	1951.2.11, 3.17, 3.19, 3.28, 3.30, 4.2, 4.5, 4.16, 4.24, 5.12.	no.202356 no.203317 no.203317
	마차령(6사단) 문화 부	1950.8.6, 8.8, 8.14.	no.200378 SA2009-9-24
	851군부대(7사단)	1951.2.9, 2.일자미상, 2.12, 2.13, 2.18, 2.19	no.202702
전투통보	마차령(6사단) 문화 부	1950.7.3.	no.200346
	655군부대(6사단)	1951.3.30.	SA2012-5-132
戰火	조선인민의용군 제 1여단	1950.8.1-4.	no.200631

제호	발행주체	일자	노획문서번호 (SA, no)
正路	조선공산당 북부조선분국(북조선공산당)	1945~1946년	러시아(기광서)
조국과인민을 위하여	한라산(1군단 예하부대)	1950.11.14, 11.17, 11.17(호외), 11.23, 11.30, 12.23, 1951.1.1, 1.6, 1.9, 1.12, 1.15, 1.16, 1.21, 1.26, 2.1, 4.3.	no.202200 no.202099
조국을위하여	조국일보사(부산)	1951.12.2.	SA2012-8-98
조국전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1951.3.28, 1952.6.26, 8.15, 1953.7.24.	no.203327 SA2013-1-68 SA2013-1-198
조선신문	조선신문사(소련군사령부)	1946~1949년 1월	SA2007-9-4 SA2007-9-14
조선인민군	민족보위성	1950.6.21, 6.26, 6.30, 7.1, 7.2, 7.4, 7.5, 7.7, 7.8, 7.11, 7.13, 7.14, 7.16, 7.19, 7.29, 8.2, 8.3, 8.6, 8.7, 8.17, 8.19, 8.22~31, 9.1~9, 9.15, 9.16, 11.29, 12.4, 12.7, 12.11, 1951.2.11, 2.18, 3.17, 5.8, 8.14, 8.26, 8.28, 8.31, 9.2, 9.3, 9.5, 9.6, 9.18.~9.23, 9.27, 9.28, 9.30. 1952.11.17, 12.13.	nos.200273 200347, 200415 200650, 200709 200985, 201782 202741, 202892 203330, 203410 203964, 204232 204234, 204317 204692, 204703 206900 SA2007-8-93 SA2013-1-77
조선인민보	조선인민보사	1950.7.2, 7.26, 7.30, 8.1, 8.3~8. 8.10, 8.13, 8.14, 8.20, 8.23, 8.27, 8.30, 8.31, 9.5~9.8, 1951.2.23. [1950.7.2.~1951.2.23.]	no.201445 no.200647 no.200795 SA2012-6-103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내각직속)	1951.2.8, 2.13, 2.16, 2.17, 2.19, 2.21, 2.22, 2.25, 2.26, 2.28, 3.2, 3.7, 3.10.	no.200647 no.202633
	조선중앙통신해방지구총본사	1951.3.8,	SA2012-
조쏘문화	조쏘문화협회	1951.12.1, 1952.2.7, 2.14, 2.21, 4.10	SA2012-7-124 SA2012-8-58
충남로동신문	충남로동신문(로동당 충남도당)	1950.8.15, 9.18, 1951.6.25, 7.10, 7.14, 10.6, 11.19.	no.200712 no.201445

제호	발행주체	일자	노획문서번호 (SA, no)
			SA2012-8-29
충남민청	충남도민청 · 군단민청	1951.3.30.	SA2012-8-94
충남인민보	충남인민보사	1950.8.28.(창간호), 1950.8.30.	no,201445
충북로동신문	충북로동신문사(로 동당 충북도당)	1950.9.13. 1951.4.28, 11.5, 11.6, 11.10, 12.10, 1952.1.23, 2.8.	no,200647 SA2012-8-29
통신	조선빨찌산독립제6 지대 정치부	1951.1.24, 1.27.	SA2012-8-114
투보	전북 남원군빨찌산 사령부	1951.6.15, 6.22, 6.29.	SA2012-8-103
투사신문	투사신문사(평양)	1948-1950년 1950.6.28.-6.30, 7.5, 8.1, 8.3, 8.8, 8.9, 8.13, 8.15-8.17, 8.22, 8.24.	no,201783 no,202000 SA2007-9-17 SA2010-2-67
평남로동신문	조선로동당 평남도 당위원회 · 평양시 당위원회	1950.12.27.	SA2012-6-102
평남인민보	평안남도인민위원 회 · 평양시인민위원 회	1951.2.10, 5.17.	no,203496 SA2012-5-1 SA2012-5-85
평북로동신문	북조선로동당 평안 북도위원회 · 신의 주시위원회	1947.5-1948.	SA2007-
함남로동신문	북조선로동당 함남 도당	1947.3-10, 1949.4-6.	SA2007-8-90 SA2006-5-12
함남인민보	함경남도인민위원 회	1948.7.18, 7.21, 8.3-6, 8.8, 8.10-16, 8.18-26, 1949.1.5, 1.20, 3.4, 3.16, 3.19, 3.20, 3.22-31, 4.1-3, 4.8-16, 4.21, 4.23, 4.24, 4.26, 4.28, 4.30, 5.1, 5.3-6, 5.11-15, 5.17-22, 5.25-27, 5.29, 6.1-5, 6.7, 6.9-12, 6.14-16, 6.21-23, 6.25-27, 6.29, 6.30, 7.1, 9.13.	SA2009-8-87 SA2009-8-88
함북로동신문	북조선로동당 함북 도당	1947.10.21.	SA2012-8-29
해방일보	해방일보사(조선공 산당)	1950.7.3.-7.10, 7.12, 7.19-7.21, 7.24-26, 7.29, 7.31, 8.9, 8.15, 8.17, 8.18, 8.21-22, 8.24, 8.26, 8.28, 8.30-31, 9.1-2, 9.5, 9.7-8, 9.10, 9.12, 9.13, 9.17, 9.23,	nos,200415 200633, 200647 200651, 200703 200959, 201433

제호	발행주체	일자	노획문서번호 (SA, no)
		1951.1.22.~1.29, 1951.2.4.~3.6.	201445, 201543 SA2012-5-23 SA2012-6-8
호소문	제3병원장(거제도 포로수용소)	1952.10.4.	
황해로동신문	황해로동신문사(북조선로동당 황해도당위원회·해주시당위원회)	1947~1948년 1951.6.15, 6.17.	SA2007-9-Misc no,204695
황해인민보	황해도인민위원회	1951.6.17, 6.19, 6.24, 6.25.	SA2012-6-98
황해일보	황해일보사	1951.8.3~8.15, 9.9~10.12, 10.13~10.27, 11.24 1952.2.20~22, 2.25~26, 3.1, 3.4, 4.4, 4.13, 4.30, 5.3, 5.11, 5.16, 5.23, 7.6, 7.16, 7.22~25, 8.10, 8.15, 8.18, 9.2~6, 9.13, 9.17, 9.18, 9.20, 9.21, 9.23~26, 9.28, 10.2~5, 10.7, 10.11, 10.12, 10.18, 10.19, 10.21, 10.23~26, 10.28~31, 11.4~6, 11.8, 11.11, 12.6, 12.16, 12.18, 1953.1.4, 2.8, 2.13, 2.21, 3.5, 3.7, 3.27, 5.21, 6.5, 6.7, 6.16, 6.20, 6.26, 6.27, 7.3, 7.7, 7.8, 7.15, 7.21, 7.22, 11.6, 11.14, 11.15, 11.17, 11.19~21, 11.24, 11.28.	no,206648 no,206649 no,207153 no,207183 SA2012-6-98 SA2013-1-199 SA2013-1-30 SA2013-2-8
회문산승리의길	회문산승리의길사(전북)	1951.10.2.	SA2013-2-29
Peace	[영어 포로신문]	4호 [1953.2.10. 노획]	no,206903

[비고]

1. 남한신문, 북한잡지, 북한군문서, 중국인민지원군신문·문서 등은 제외.
2. 강북로동신문의 “no.202947”은 선별노획문서(신노획문서) RG 242, Captured Enemy Doc, North Korean Documents, Entry UD 300-C, Document no.202947을 의미함.
3. 강북인민보의 “SA2012-9-30”는 구노획문서 RG 242, Captured Korean Documents, Entry NM-44 299, Shipping Advice (SA) 2012, Box 9, Item 30를 의미함.
4. 노획문서 번호가 공란인 것은 NARA에서 수집하는 과정에서 소장정보가 망실된 것임.

Ⅲ. 북한노획문서 중 북한신문 자료의 유형

북한노획문서에 포함된 북한신문 자료들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그 성격 및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945~1953년간 북한에서 간행된 신문류

1) 조선로동당 관련 신문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분량이 많은 것은 조선로동당 관련 신문들이다. 조선로동당 당중앙이 간행한 『로동신문』이 분량과 시기적 범위에서 가장 많이 노획되었다. 『로동신문』의 전신은 1945년 11월 1일 창간된 『정로(正路)』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기관지였다. 당보(黨報)로 간행된 『정로』는 소형 2면, 주간으로 1회 1,000부 정도씩 한자 병기 판형으로 발행되었다. 1946년 초부터 5일간, 격일간 등으로 불규칙 간행을 하다가, 1946년 1월 26일부터 일간으로 발간했으며, 3월 14일부터는 소판 4면, 5월 28일부터 대판 2면으로 지면을 늘렸다.⁴⁾ 발행부수는 2만 부였다.⁵⁾ 1946년 8월 북조선공산당(1946년 2월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개칭)이 조선신민당과 합당해 북조선로동당을 창당하게 되자, 1946년 9월 1일 조선신민당의 기관지 『전진』(윤규섭 책임)과 통합하여 『로동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했다.⁶⁾ 1회 발행부수 10만 부 이상, 1946년 11월 5일부터 대판 4면 신문의 체제가 되었다. 1949년 현재 기석복이 책임주필이었다. 북한노획문서 중 『로동신문』은 1948년부터 1953년 7월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정로』는 북

4) 리용필, 『조선신문100년사』 (서울: 나남, 1993), 209쪽.

5) 김영주·이범수, 『북한언론의 이론과 실천』 (서울: 나남, 1991), 163쪽.

6) 위의 책, 31~32쪽.

한노획문서에 한 호(1946.3.22)가 소장되어 있다.⁷⁾

로동당 지방신문들은 모두 도당위원회 및 시당위원회의 합동 기관지로 발행되었다. 평남은 평남도당 및 평양시위원회, 평북은 평북도당 및 신의주시위원회 명의로 발행되는 형식이었다.

『평남로동신문』은 조선로동당 평남도당위원회·평양시당위원회의 기관지로 발행되었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1950년 12월 27일자 한 호이다. 원래 평안남도당 기관지였던 『봉화』(1945년 10월 14일 창간)는 북조선공산당 기관지 『정로』가 발행되면서 흡수되었고, 1950년 『평남로동신문』이라는 제호로 평남도당 위원회 기관지로 재발행된 것이다.⁸⁾

『평북로동신문』은 북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신의주시위원회 기관지로 발행되었다. 원래 평북도당 기관지였던 『바른말』이 1946년 9월 이후 『평북로동신문』으로 개칭해 발행하기 시작했다. 1947년 5월부터 1948년도분이 존재한다. 한편 1949년 평안북도의 5개 군과 함경북도의 일부를 통합해 자강도를 신설한 후 『자강로동신문』이 발행되었다. 북한노획문서에서 『자강로동신문』 현물은 발견되지 않는다.

『황해로동신문』은 북조선로동당 황해도당부·해주시당부 기관지로 발행되었다. 1947~1948년 327면, 1951년 6월 2일치가 확인된다.

『함남로동신문』은 북조선로동당 함남도당위원회·원산시위원회 기관지로, 1945년 9월 창간된 『정의』가 『옳다』를 거쳐 『함남로동신문』이 되었다.⁹⁾ 북한노획문서에 1947년 3~10월, 1949년 4~6월분이 소장되어 있다. 북조선공산당 함남도당부 기관지 『옳다』는 윤군창 주필로 4면으로

7) 『정로』는 기광서 교수(조선대)가 러시아에서 수집해 제공한 것이다.

8) 김영주·이범수, 『북한언론의 이론과 실천』, 32쪽.

9) 장용훈, 「함남일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울: 동방미디어 온라인판, 2000) (2021.3.31. 검색); 『조선대백과사전』 24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한국평화문제연구소 공동편찬, 『조선향토대백과』 12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5).

발행되었으며, 1945년 12월부터 1946년 7월분이 남아 있다. 북한노획문서가 아니라 러시아에서 입수한 것이다.¹⁰⁾

『함북로동신문』은 북조선로동당 함북도당위원회·청진시당위원회 기관지이다. 해방 후 1945년 10월 6일 『새길』이라는 제호로 창간되었다가, 『햇불』·『함북정로』를 거쳐 『함북로동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했다.¹¹⁾ 북한노획문서에 1947년 10월 21일 한 개 호가 확인된다.

『강원로동신문』은 북조선로동당 강원도위원회·원산시당위원회 기관지이다. 원산은 원래 함경남도에 속했으나 1946년 9월 강원도로 행정구역이 재편되었다. 1946년 8월 합당으로 북조선로동당이 창당된 이래, 원산시 당기관지 『선봉』이 『강원로동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¹²⁾ 한국전쟁 중인 1951년 7월 1일 『강원인민보』와 통합해 『강북일보』가 되었으며, 1953년 12월 10일 『강원일보』가 되었다. 1947년 4~10월, 1950년 7월분이 북한노획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강북로동신문』은 조선로동당 북강원도 당위원회 기관지이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38선 이북 강원도를 북강원도로, 조선로동당 강원도위원회도 조선로동당 북강원도위원회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원래 강원도위

10) 『옳다』는 기광서 교수(조선대)가 러시아에서 수집해 제공한 것이다.

11) 김영주·이범수, 『북한언론의 이론과 실천』, 163쪽. 전현수 교수에 따르면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문서군 속에 247개 문서 첩로 구성된 1919~1949년 시기 조선공산당 문서컬렉션이 있으며, 이 가운데 해방 직후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북조선공산당 함경남도당부 기관지 『옳다』, 북조선공산당 강원도당부 기관지 『앞으로』, 북조선공산당 함북도당부 기관지 『咸北正路』, 북조선공산당 평안북도당부·신의주시당부 기관지 『바른말』이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문서군 495, 목록 135, 문서철 216. 전현수, 「해방직후 북한자료 해제2-러시아생산 자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북한현대사문헌연구』 (서울: 백산서당, 2000), 168~169쪽.

12) 김영주·이범수, 『북한언론의 이론과 실천』, 32쪽.

원회가 간행하던 『강원로동신문』의 제호를 『강북로동신문』으로 개칭했다. 현재 제23호(1951.2.10) 한 호가 북한노획문서에서 확인된다.

2) 인민위원회 관련 신문

다음으로 인민위원회 관련 신문들이다. 여기에는 북한정부 기관지인 『민주조선』을 비롯해, 각도 인민위원회가 간행한 기관지들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조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기관지로 되어 있다. 이 신문의 전신은 원래 1945년 10월 15일 평남인민정치위원회 산하 『평양민보』로 창간되었다가,¹³⁾ 1946년 6월 4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기관지 『민주조선』으로 개칭한 것이다. 1947년 2월 1일부터 대판 4면 신문의 체제를 갖추어 당보 『로동신문』과 쌍벽을 이루고 있다.¹⁴⁾ 『민주조선』은 북한 국가·국회·정부 기관지인 것이다. 현재 북한노획문서에 남아 있는 것은 1947년부터 1954년 3월까지의 시기를 포괄하고 있다. 1949년에는 류문화가 책임주필을 맡았다.

『평남인민보』는 평안남도 인민위원회·평양시 인민위원회 기관지이다. 『평남인민보』의 전신인 『선봉』으로 1945년 10월 1일 창간되었으며, 『정로』에 통합되었다가, 1950년 12월 『평남인민보』의 제호로 발행되기 시작했다.¹⁵⁾ 1951년 현재 책임주필은 주기락이었다. 북한노획문서에

13) 『평양민보』(평양민보사)는 1945년 10월 1일(창간호), 10월 23일, 10월 27일자가 한국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한국연구원, 『소장신문목록 1883~1953』(서울: 재단법인한국연구원, 1984) 47쪽. 국회도서관에는 1945년 10월 23일~12월 4일자가 마이크로필름으로 소장되어 있다. 10월 21일(6호)도 마이크로필름으로 소장되어 있다. 「조선인민보 ; 혁명신문 ; 해방일보 ; 노력인민 ; 평양민보 ; 우리신문 ; 전선 ; 인민해방보 [마이크로자료]」(서울: 국회도서관, 1960); 이완범, 「해방직후 북한자료 해제1-북한생산 자료」 『북한현대사문헌연구』 92쪽, 94쪽.

14) 리용필, 『조선신문100년사』, 212쪽; 김영주·이범수, 『북한언론의 이론과 실천』, 163쪽.

1951년 2월과 5월 하루분이 소장되어 있다. 1951년 7월 1일 『평남로동신문』과 통합해 『평남일보』가 되었다.

『자유황해』(『황해인민보』)는 1945년 9월 6일 창간된 황해도 인민위원회 기관지이다. 북한노획문서에 1947년도 5일분(1947.3.30, 4.2, 7.22, 9.2, 9.3)이 확인된다. 이후 『황해인민보』로 제호를 변경했으며, 북한노획문서에 1951년 6월달 4일분이 소장되어 있다. 『황해인민보』는 1951년 7월 1일 『황해로동신문』과 통합해 『황해일보』가 되었다.

『함남인민보』는 함경남도 인민위원회 기관지로, 해방 직후 간행되었던 『함남인민일보』를 개칭한 것이다.¹⁶⁾ 유엔군의 1950년 10월 북진 시기에 노획되었으므로, 1948년 7~8월, 1949년 1~6월분의 상당량이 북한노획문서에 존재한다. 1951년 7월 1일 『함남로동신문』과 통합하여 『함남일보』로 개편되었다.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관계로 전쟁 이후의 것은 발견되지 않는다.

『강원인민보』는 강원도 인민위원회 기관지이다. 전신이 무엇이었는데는 명확하지 않다. 강원도는 해방 후 38도선 분할 이후 11개 군을 기반으로 도 소재지를 철원에 두었고, 1946년 함경남도 소속이던 원산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을 편입한 후 도 소재지를 원산시로 옮겼다. 해방 후 원산에서는 『원산인민보』(1945년 11월 5일 창간), 함경남도에서는 『함남인민일보』가 발행되었기 때문에,¹⁷⁾ 『원산인민보』가 1946년 10월 이후 『강원인민보』로 제호를 변경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노획문서에는 1947년 3~12월, 1950년 3월 분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15) 장용훈, 「평남일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대백과사전』 22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16) 김영주·이범수, 『북한언론의 이론과 실천』, 32쪽.

17) 위의 책, 163쪽; 유문화, 『해방후 4년간의 국내외 중요일지』 (평양: 민주조선사, 1949) 14쪽.

『강북인민보』는 한국전쟁기 강원도 인민위원회 기관지였다. 개전 이후 북한은 38선 이남의 강원도를 남강원도, 38선 이북의 강원도를 북강원도라 칭하고, 강원도인민위원회를 북강원도 인민위원회로 개편했다. 해방후 강원도 인민위원회가 발행하던 『강원인민보』의 제호는 『강북인민보』로 개칭했다. 제56호(1951.4.17)가 남아 있다. 북한의 도별 1신문 원칙에 따라 『강북인민보』는 『강북로동신문』과 통합해 『강북일보』가 되었다.

북한노획문서에서 『평북인민보』·『함북인민보』는 현물이 발견되지 않는다. 평북인민위원회 기관지인 『평북인민보』는 해방 후 발간되던 『평북신보』를 1946년 10월 이후 『평북인민보』로 개칭한 것이다.¹⁸⁾ 『함북인민보』는 해방 후 발행되었던 『새길신문』을 1946년 10월 이후 『함북인민보』로 제호 변경한 것이다.¹⁹⁾

3) 로동당 · 인민위원회 통합신문

북한은 한국전쟁의 와중인 1951년 7월 이래 로동당 각도에서 발행하던 도로동신문과 도인민보를 하나의 도일보로 통하는 조치를 취했다. 지방로동신문과 지방인민보와 통합해 각도명이 들어간 신문을 만든 것이다. 전시 중 당과 정권기관이 전쟁수행을 위해 통일된 노선을 취하기 위한 방침이자, 전시 물자·장비·기술난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리용필에 따르면 “단일한 도일보의 발행, 이것은 지방의 기자, 편집원 역량과

18) 『평북신보』(신의주, 평북신보사, 주필 安基錫)는 1946년 2월 1일, 2월 2일, 2월 5일, 2월 9일자가 한국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한국연구원, 『소장신문목록 1883-1953』 47쪽.

19) 김영주·이범수, 『북한언론의 이론과 실천』, 163쪽.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자료 중에 함경북도인민위원회 기관지 『새길신문』, 강원도인민위원회 기관지 『강원인민보』, 황해도인민위원회 기관지 『자유황해』, 평북도인민위원회 기관지 『평북신보』 등이 소장되어 있다.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문서군 495, 목록 135, 문서철 217. 전현수, 「해방직후 북한자료 해제2-러시아생산 자료」 169쪽.

인쇄기자재를 통일적으로 리용하여 전쟁의 어려운 조건을 이겨낼 수 있게 한 현명한 조치였을 뿐 아니라 도당위원회들로 하여금 신문 발간사업을 유일적으로 장악 지도하여 보다 내용이 충실하고 수준이 있는 신문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한 적극적 조치였다. 우리나라의 지방신문들은 이때부터 1도 1지의 원칙에서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²⁰⁾고 한다. 이에 따라 『평남로동신문』은 『평남인민보』와 통합해 『평남일보』가 되는 식으로 『강원일보』, 『량강일보』, 『평남일보』, 『평북일보』, 『함남일보』, 『함북일보』, 『황남일보』, 『개성신문』 등이 당·정권기관 통합신문으로 발행되기 시작했다.²¹⁾

이 가운데 북한노획문서에서 실물이 확인되는 신문은 『개성신문』·『강북일보』·『황해일보』 3종이다.

『개성신문』은 1952년 2월 19일 창간된 신문으로 “신해방지구인민들”을 위해 발간된 것이다. 한국전쟁의 결과 38선 이남지역이었던 개성은 북한의 수중에 들게 되었고, 북한은 개성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개풍·장단·판문, 황해도의 용진·연안·배천·청단·강령 등 “신해방지구”를 대상으로 한 『개성신문』을 발행한 것이다. 북한노획문서에는 1952년 5월부터 1953년 12월까지 다수의 신문이 소장되어 있다. “신해방지구”는 한국전쟁 당시 전선과 직결된 곳이었으므로, 1953년말까지 신문이 노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북일보』는 1951년 7월 1일 『강원로동신문』과 『강원인민보』가 통합해 만들어진 신문이다. 북한노획문서에는 1952년 2월과 3월 5일분이 소장되어 있다. 『강북일보』는 1953년 12월 10일 『강원일보』로 제호가 변경되었다.

²⁰⁾ 리용필, 『조선신문100년사』, 281쪽.

²¹⁾ 김영주·이범수, 『북한언론의 이론과 실천』, 33쪽.

『황해일보』는 1951년 7월 『황해도동신문』과 『황해인민보』를 통합해 만들어진 신문이다. 북한노획문서에 1951년 8월분부터 1953년까지 다량의 호수가 포함되어 있다. 황해도가 전선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1951년부터 1953년에 이르기까지 『황해일보』가 많이 노획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북한 언론사에 따르면 해방 직후 북한의 지방 공산당·로동당, 정권기관의 기관지로 발행된 것들로 평남(평양)에서 『매일신문』·『봉화』, 신의주에서 『바른말』·『평북신보』, 청진에서 『햇불』·『새길』, 함흥에서 『옳다』·『인민일보』, 해주에서 『자유황해』·『신생민보』, 철원에서 『강원인민보』, 원산에서 『원산민보』 등이 발간되었다.²²⁾ 『옳다』·『자유황해』를 제외한 신문들은 북한노획문서에 나타나지 않는다.

4) 각 직종·부문 신문

1946년 이후 북한에서는 계층별, 부문별, 직업별로 전문화·특화된 신문들이 간행되기 시작했다.

북한 언론기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직속 북조선통신사(1946.12.5. 설립)인데, 이는 1948년 10월 12일 북한 내각 직속 조선중앙통신사가 되었다. 북한 유일의 통신사로 국내 국외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일간 『조선중앙통신』을 발행했다. 이는 신문에 게재될 중요 뉴스와 정보를 담은 통신사 발행 뉴스물이었다. 북한노획문서에는 2종류의 『조선중앙통신』이 존재한다. 하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직속 조선중앙통신사 발행으로 1951년 2~3월분이 존재하며, 조선중앙통신해방지구총본사가 발행한 1951년 3월분 등이 존재한다. 북한노획문서 중에 조선중앙통신 함북·강원·자강·황해지사 서류철과 직원이력서 등이 함께 존재한다.

²²⁾ 리용필, 『조선신문100년사』, 213쪽.

『로동자신문』은 1946년 2월 9일 창간된 북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이다. 한 달에 한번 정도 대판 2면으로 나오다 주간신문이 되었으며, 1949년 8월부터 일간으로 변경되었다. 북한언론사에 따르면 최초의 순국문신문이었다.²³⁾ 책임주필은 공성회(孔成會)로 되어 있으며, 북한노획문서에 1947년 4-11월, 1948년 4월분이 여러 장 들어있다. 한편 북한노획문서에는 『노동자신문』이라는 제호의 신문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북한이 아닌 남한에서 간행된 신문이다. 발행인 정재철(鄭載轍), 편집원 박우승(朴雨升)으로 되어 있으며, 1946년 10월 이래 3일분이 남아 있다. 정재철은 경성콤그룹 대구지역 책임자이자 민전 중앙위원을 지낸 공산주의자로 1948년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을 지냈다.²⁴⁾ 변우승은 1936년 진주고보를 졸업하고 경성제대 예과에 진학한 후 1939년 경성제대 본과에 입학한 기록이 있다. 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이 간행하던 『전국노동자신문』과는 별개의 신문이다.

『로동자신문』은 1950년 이전 『로동자』로 제호를 변경했다. 북한노획문서에는 1950년 이래 『로동자』 제호의 신문이 4건 발견된다. 1950년 3월 현재 북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 책임주필 박기호, 발행소 로동신문사로 명기되어 있다가, 1951년 11월에 이르면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 변경되었으며 책임주필 한성으로 표기되어 있다.

『농민신문』은 1946년 3월 20일 창간된 북조선농민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북조선농민신문』을 개칭한 것이다. 『북조선농민신문』은 창간 이후 “농민대중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통속신문의 역할을 수행”²⁵⁾하며 주 1회 8만 부를 발행했다. 1947년 5월부터 일간지로 전환하며 제호를 『농민신문』으로 개칭해 일간 3만 부를 발행했다. 주간지는 2면 발행이었고,

23) 리용필, 『조선신문100년사』, 212쪽.

24) 강만길·성대경 편, 『한국사회주의인명사전』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6), 440쪽.

25) 리용필, 『조선신문100년사』, 212~213쪽.

일간지로 전환 이후 4면 발행체제였다. 1949년 책임주필은 김규호였다. 북조선농민동맹은 1952년 조선농민동맹으로 개칭되었다. 북한노획문서에 『북조선농민신문』 제호의 1946~1947년분 다수, 『농민신문』 제호로 1947년 7~11월, 1950~1953년 다수 호수가 발견된다. 최초에는 2면으로 발행하다 1947년 7월 이래 4면 발행을 했다. 남한의 전국농민총연맹(농총)이 간행한 『전국농민신문』의 경우 1946~1947년도 5일분이 북한노획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민주청년』의 전신은 1946년 4월 20일 창간된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청년』이다. 1946년 11월부터 『민주청년』으로 제호를 변경했다.²⁶⁾ 1949년 책임주필은 량남진이였다. 『민주청년』은 북한노획문서 중 1947년 9월~1948년 5월, 1950~1953년 8월분 다수가 소장되어 있다.

『교원신문』은 1948년 4월 15일 창간된 “교원문화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부문의 신문”이었다. 최초의 발행주체는 교육성 및 북조선교원문화일군 직업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였다. 1949년 책임주필은 태성수였다. 북한노획문서에 1950년 4월분과 1951년 한 호(1951.7.7)가 소장되어 있다.

『교통신문』은 교통성 정치국의 기관지로 철도종업원을 비롯한 교통운수 부문을 독자로 하는 신문이다. 1949년 책임주필은 김원식이였다. 북한노획문서에는 1951년 195호(1951.9.8)가 소장되어 있다.

『조국전선』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기관지이다. 조국전선은 1949년 6월 25일 남한의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과 북한의 민주주의민족전선이 통합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1949년 책임주필은 홍순철, 1951년 책임주필은 남로당 출신 강문석이였다. 발행지는 평양시 조국전선사로 표기되어 있다. 1951년 1개 호(1951.3.28)와 1952년 2개 호(1952.6.26, 8.15), 1953년 1개 호(1953.7.24)가 북한노획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26) 위의 책, 213쪽.

『조선인민군』은 민족보위성 기관지로 1948년 7월 10일 창간되었다. 『조선인민군』의 전신은 1948년 2월부터 발행되던 『전사』였다.²⁷⁾ 책임주필은 명시되지 않았다.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상당량이 북한노획문서에 들어있다.

『개혁신보』는 1946년 8월 1일 창간된 북조선천도교청우당 기관지였다. 최초에는 주 1회 6만 5천 부를 발행하는 주간신문이었다가 1947년 4월 1일 이후 일간지로 전환했다. 1948년 12월 현재 3만 7천 부를 발행했다. 1949년 책임주필은 김도현, 1950년 책임주필은 박우천이었다. 북한노획문서에 1950년 4~5월 4일치가 들어 있다.

『투사신문』은 평양 투사신문사가 간행한 일간지이다. 창간일은 미상이지만, 1947년 6월 6일 제3종 우편물인가를 얻었으므로, 그 이전에 창간되었을 것이다. 1948년 현재 책임주필은 김도명, 발행소는 평양특별시 대환리로 되어 있다. 북한 신문사에는 행정10국이 간행한 여러 신문 중의 하나로 되어 있지만, 어떤 행정부서가 발행하는지는 특정되어 나타나지 않는다.²⁸⁾ 1947년에는 한자 『鬪士新聞』을 사용했으며, 1948년 이후 한글 『투사신문』을 제호로 사용했다. 1948년 이래 책임주필은 한효, 발행소는 평양시 민본리15로 기록되어 있다. 한효는 일제 시기 카프 출신으로 해방 후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을 주장했으며, 1946년 초 월북한 인물이다. 북한노획문서에 1947년 2일, 1948년 70여일, 1950년대 수십일분이 들어있다.

『조소문화』는 창간된 조소문화협회 중앙위원회가 주 1회 발행하는 주간신문이었다. 북한과 소련의 문화적 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소문화협회(1945.11)는 1946년 7월 기관잡지 『조소문화』를 창간

27) 위의 책, 216쪽.

28) 위의 책, 216쪽; 김영주·이범수, 『북한언론의 이론과 실천』, 228쪽.

했다. 이후 조쏘문화협회는 신문 형태의 기관지도 간행하기 시작했는데, 1952년 4월 10일자 제15호(누계 147호) 신문 판권에 따르면 “1948년 5월 25일 정기간행물발송특별승인 제27”을 획득했으므로 1948년경부터 주간 신문 『조쏘문화』를 발행하기 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누계로 따지면 2년 8개월 전쯤 창간호가 나온 것이다. 1949년 현재 책임주필은 박길용이었으며, 1952년 현재 책임주필은 립화, 발행소는 조쏘출판사, 평양특별시 도산리 34번지였다. 북한노획문서에 1951년 1일분, 1952년 4일분이 소장되어 있다.

북한신문사에 따르면 1949년 현재 이들 신문 외에 다수의 신문이 발행되었다. 교육성 발행으로 학생·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신문』(책임주필 조정국), 조선민주당의 기관지인 일간 『조선민보』(책임주필 조경홍), 행정10국의 하나가 발행한 『조선문화』, 북조선 문예총기관지 『조선문화』(책임주필 안함광), 북조선화교연합회 기관지 『민주화교』(책임주필 리봉진), 북조선 소비조합 기관지 『순간소비조합』(책임주필 장경환), 적십자사 기관지 『민주적십자』(책임주필 장세광), 김일성종합대학 『대학신문』(책임주필 한규학), 강선제강소 신문 『돌격』, 황해제철소 신문 『용광로』 등이 간행되었다.²⁹⁾ 북한노획문서에서 실물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5) 소련(군) 발행 신문

『조선신문』은 북한 진주 후 소련군사령부가 발행한 신문이다. 1946년 2월 28일 창간되었으며 조기천·민병태·김조규·박효정·최명익 등이 관여했다.³⁰⁾ 한문 제호 『朝鮮新聞』을 사용하였고, 제호 밑에 “조선인민

29) 리용필, 『조선신문100년사』, 216~217쪽; 김영주이범수, 『북한언론의 이론과 실천』, 228쪽.

30) 유문화, 『해방후 4년간의 국내외 중요일지』 32쪽; 이완범, 「해방직후 북한자료 해제1-북한생산 자료」 『북한현대사문헌연구』 96쪽.

을 위한 붉은군대 신문”이라고 쓰여 있다. 발행소는 조선신문사 평양시 성매리 1번지로 되어있다. 소련군 연해주군관구가 주관해 최대 10만 부를 발행했으며, 소련 25군 사령부 산하 조선신문 편집부가 편집을 담당했다. 11단 4면으로 처음에는 주 3회, 이후 주 7회 간행되었다. 1947년 5월 현재 책임편집자는 부디킨대좌였다. 북한노획문서에는 1947~1949년 1월까지 다량의 신문이 남아 있다.

『쏘베트신보』는 소련대외문화협회 재평양문화회관이 발행한 신문이다. 1949년 2월 2일 창간되었으며, 책임 주필은 야. 이. 카들린이다. 발행소는 『조선신문』과 동일한 평양시 성매리 1번지이며, 매주 2회 발행이었다. 소련대외문화협회는 소련의 대외정책기구 중 하나로 소련 체제·문화의 우수성을 선전하기 위해 제작한 선전용 신문이다. 북한노획문서에 1949년부터 1952년까지 다량이 소장되어 있다.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인민 민주주의를 위하여!』는 1950년 5월 창간된 코민포름 기관지이다. 제호에 공산당 및 노동당 등의 보도국 기관지·부카레스트라고 명기하고 있다. 1947년 9월 소련공산당의 주도로 9개국 공산당·노동당 대표가 조직한 코민포름의 기관지 『За прочный мир, За народную демократию!』의 한국어 번역본으로, 러시아판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책임주필은 리문일, 발행소는 노동신문사로 기재되어 있다. 1950년 6월부터 1953년까지 다수의 신문이 북한노획문서에 들어있다.

2. 1950~1951년 한국전쟁 북한점령기 남한에서 간행된 신문류

1) 조선로동당 관련 신문

북한의 서울 점령 이후 가장 먼저 “복간”된 것이 해방 직후 발행되었다가 미군정에 의해 폐간된 조선공산당 기관지 『해방일보』와 조선인민공

화국 기관지 『조선인민보』였다.

해방 직후 창간된 『해방일보』는 1945년 9월 19일부터 1946년 5월 18일까지 간행되었고, 정판사위조지폐사건으로 폐간처분되었다. 이후 북한의 서울 점령 직후인 1950년 7월 2일 재발간되었다. 현재 북한 노획문서 상으로 1950년 7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총 84호가 간행되었으며, 1951년 1월 서울 재점령 이후 1951년 2월 22일(90호)부터 3월 6일(114호)까지의 실물이 북한노획문서에서 확인된다. 서울공인사(구 경성일보)에서 발행되었으며, 책임주필은 장하일(張河一)로 평양 『로동신문』 편집국장을 지낸 바 있다.³¹⁾ 해방 직후 『해방일보』 편집국장주필을 지낸 이원조(李源朝), 편집국장 서강백(徐康百) 등이 참가했다. 서울 점령 직후 불과 일주일 내에 신문이 발행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사전 발간준비와 전쟁기획의 면모를 알 수 있다.

〈표 1〉 해방 후~한국전쟁기 『해방일보』 간행 상황

	1차(해방공간)	2차(한국전쟁 초기)	3차(1·4후퇴 시기)
해방일보	1945.9.19.(1)~46.5.18(150)	1950.7.2.(1)~9.23(84)	1951.2.22.(90)~3.6(114)

출처: 정진석, 『전쟁기의 언론과 문학』, (서울: 소명출판, 2020), 118쪽.

북한이 남한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조선로동당 남한 지역 도당 부에서 간행하는 『○○로동신문』이 간행되기 시작했다. “1950년 7월에 벌써 강원도(남)을 비롯하여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도소재지들에서 새로운 출판물들이 발간되기 시작하였다”³²⁾ 현재 북한노획문서 중에 다수의 조선로동당 남한 도당부가 간행한 『○○로동신문』들이 존재한다. 명

31) 정진석, 『전쟁기의 언론과 문학』, (서울: 소명출판, 2020), 124-125쪽.

32) 김영주·이범수, 『북한언론의 이론과 실천』, 182쪽.

칭은 『○○로동신문』이지만, 실제로는 입산 빨치산들이 간행하는 등사판 간행물이자 비합법 지하신문인 경우들이 많다. 이들 『○○로동신문』 가운데 인쇄판 신문으로 현재 확인되는 것은 『해방일보』·『충남로동신문』 뿐이다. 즉 『○○로동신문』의 제호를 붙인 것 가운데 1950년 7~9월 사이에 간행된 것은 인쇄 형태의 정기 간행 신문들이며 1950년 11월 이후 간행된 것은 등사판 형태의 부정기 간행 비합법 지하신문이자 빨치산 신문으로 볼 수 있다. 북한점령기 『○○로동신문』을 간행하던 로동당 도당위원회가 9.28 이후 입산해 해당 신문을 계속 간행하는 형태를 취한 것이다. 9.28 수복 이후 남로당은 당이 현실적으로 활동기능하는 것처럼 선전·선동하고 남로당 및 동조자들을 고무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통일된 『○○로동신문』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 지방 당원들의 경우 남로당과 북로당이 합당(1949.5)해서 조선로동당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신문에서도 조선로동당과 남로당을 병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경남로동신문』은 경남로동신문사가 발행소로 되어있다. 북한노획문서 중 제2호(1950.11.30)부터 시작해 1951년 10월 26일호까지가 확인된다. 제2호가 1950년 11월 30일자이고, 간행주기가 1주일 간격이었으므로 창간호는 11월 23일경에 발행되었을 것이다. 9.28수복 이후 덕유산·지리산으로 은신한 경남지역 남로당원들에 의해 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빨치산자료집』에 35개 호수가 수록되어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제2호(1950.11.30)~제12호(1952.4.6)까지 11개 호가 확인된다.

『경북로동신문』은 조선로동당 경북도당부 기관지로 대구시 남산동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신문 기사 중 도당조직위원회, 경북도당 위원장 등의 명칭이 나타나지만, 실제로 대구시에서 발행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1951년 9월부터 1952년 1월까지 10일분이 남아 있다.

『광주로동신문』은 광주시 광주로동신문사가 발행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제6호(1950.12.30)가 남아 있는데, 순간(旬刊)으로 표기되어 있다. 9.28 이후 입산한 광주시 남로당원들에 의해 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도동신문』은 광주시 전남로동신문사가 발행주체로 되어 있다. 전남도당위원회 기관지로 추정되며, 제73호(1951.4.28), 제96호(1951.11.6), 제104호(1952.2.8)가 확인된다. 주간신문으로 명시되어 있다. 제73호로부터 역산한다면, 1949년부터 간행한 것인데,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때문에 북한 점령 이후 7월부터 정규 일간지로 간행하다가 9.28 이후 등사판신문으로 전환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도동신문』은 전북로동신문사가 발행소로 되어 있다. 제18호(1951.2.25), 제98호(1951.9.20), 제99호(1951.9.25), 호수미상(1951.10.31), 제108호(1951.11.10), 제108호특집(1951.11.10), 호수미상(1951.11.25., 1951.12.5) 등이 확인된다. 호수로 역산해보면 북한점령기 전북도당위원회 기관지로 발행되기 시작했으며, 9.28 이후 빨치산신문으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충남도동신문』은 충남로동신문사 발행으로 조선로동당 충남도당이 간행한 신문이다. 격일간 타블로이드판으로 인쇄되었으며, 북한노획문서에 제7호(1950.8.15), 제24호(1950.9.18), 제165호(1951.6.25), 제172호(1951.7.10), 제173호(1951.7.14), 184호(1951.10.6)가 소장되어 있다. 창간일을 역산하면 1950년 7월 26일경이다. 북한군의 충남 점령이 완료된 1950년 7월말부터 9월 하순까지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도 단위 로동신문 가운데 인쇄판형이 남아 있는 유일한 신문이다.

『충북도동신문』은 조선로동당 충북도당부 기관지로 발생소는 충북로동신문사 청주시로 되어 있다. 현재 호수미상(1950.9.13, 1951.11.5, 11.10, 12.10, 1952.1.23), 제73호(1951.4.28), 제96호(1951.11.6), 제104호(1952.2.8) 등이 소장되어 있다. 간행 호수로 미루어볼 때 『충북도동신문』은 한국전쟁기 북한 점령당국에 의해 조선로동당 충청북도위원회 기관지로 간행

되기 시작했고 9.28 이후 입산 빨치산들의 간행물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인민위원회 관련 신문

『조선인민보』는 한국전쟁기 북한이 서울을 점령한 직후인 1950년 7월 2일부터 서울신문(서울시 태평로1가 31 조선인민보사)에서 발행되었다. 해방 직후 『조선인민보』는 조선인민공화국의 기관지였으나 1946년 9월 6일 이후 폐간되었다. 북한 점령기 간행된 『조선인민보』는 해방직후 간행되던 신문의 복간으로 여겨졌지만, 신문상으로는 ‘창간된 것으로 쓰고 있다. 발행소는 조선인민보사로 되어 있다. 조선인민공화국은 미군정기 부정되었고, 북한 정권과도 전혀 연관이 없었으므로, 복간된 『조선인민보』는 북한 정권의 기관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복구된 서울시(임시)인민위원회의 기관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했다.

〈표 2〉 해방 후~한국전쟁기 『조선인민보』 간행 상황

	1차(해방공간)	2차(한국전쟁 초기)	3차(1·4후퇴 시기)
조선인민보	1945.9.8.(1)~46.9.6(324)	1950.7.2.(1)~9.21(82)	1951.2.23.(90)

출처: 정진석, 『전쟁기의 언론과 문학』, (서울: 소명출판, 2020), 118쪽.

『조선인민보』는 현재 구노획문서 SA 2009, Box 6, Item 94-97, 2012, Box 6, Item 103, 신노획문서 Document no. 201445 등에 소장되어 있다. 『빨치산자료집』 제6권 신문편(1)(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에 제1호(1950.7.2)부터 제90호(1951.2.23)이 소장되어 있다. 제32호(1950.8.2), 제38호(1950.8.8) 및 제83호(1950.9.21. 이후)~제89호(1951.2.23. 이전)까지 8개호가 결락되어 있다. 제32호는 이 프로젝트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어 보완되었다. 북한이 1951년 1·4후퇴 당시 서울을 점령한 후에도 1951년 3월

초순까지 서울에서 몇 개 호가 더 발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편집국장은 이상호(李相昊) 혹은 주련(朱鍊)으로 표시되었다.

도 및 시 인민위원회가 발행한 몇 개의 인민보가 북한노획문서에 남아 있다. 북한 점령이 시작된 이후에 도 단위나 중요 시 단위로 『○○인민보』를 간행했는데, 이들은 9.28수복 이후 입산해 빨치산이 되면서 해당 『○○인민보』 명칭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인민보』는 인천시임시인민위원회 기관지로 인천인민보사가 발행했으며, 발행소는 인천시 중앙동 4번지로 되어있다. 제2호(1950.7.8)가 남아 있는데, 기사 내용을 통해 인천이 북한에 점령된 직후 구성된 인천시임시인민위원회가 발행주체임을 알 수 있다. 서울의 『조선인민보』가 7월 2일 발행한 것과 거의 동시에 『인천인민보』가 출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쇄 활자판으로 12단 조판 2면으로 간행되었다.

『전남인민보』는 광주시 전남인민보사가 간행한 것이다. 북한점령기 인쇄판형과 9.28수복 후 등사판형 두 가지 종류가 남아 있다. 제10호(1950.8.8)는 11단 2면 인쇄판형이고, 제58호(1951.9.5), 제59호(1951.9.20)는 11단 2면 등사판형이다. 등사판형의 신문들도 인쇄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조선로동당 전남도당부는 북한점령기 『전남인민보』를 인쇄해 출판하다가, 9.28 이후 입산해 등사판을 출간한 것으로, 전남지역 남로당 계열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전북인민보』는 전북인민보사가 발행한 것이다. 제68호(1951.10.20), 제69호(1951.10.31) 2개 호가 남아 있다. 11단 2면 등사판형이고, 다른 신문들과는 달리 창호지에 인쇄했다. 제69호는 1951년 10월 30일자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호소문, 10월 26일자 인민군 총사령부 보도를 게재하고 있다. 평양과 전북 빨치산 간에 연락체계 혹은 무선통신이 가능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충남인민보』는 충남인민보사가 발행한 것으로 창간호(1950.8.28), 제2

호(1950.8.30)가 남아 있다. 11단 2면 인쇄 타블로이드판형이며, 격일간으로 발행되었다.

3) 빨치산 신문

위에서 언급한 『○○로동신문』·『○○인민보』 가운데 1950년 9.28 수복 이후 간행된 신문들은 모두 등사판으로 간행되었으며, 당·인민위원회 모두 입산 피신 종이였으므로 성격상 빨치산 신문의 범주에 해당한다. 이외에 다수·다종의 빨치산 신문들이 북한노획문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신문들은 모두 유일본으로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것들이며, 발간주체, 발행지역, 종수가 다양하다.

『강철』은 거제도포로수용소 친공포로 간행 비밀 간행물이다. 제2호(1951.11.23)가 선별노획문서 Doc. no.206717에 들어 있다. 필사로 작성된 4면이며, 각 면마다 제목을 붙이고 있다. 정규적으로 발행되거나, 간행물의 특별편집인 등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남빨찌산』은 경남빨찌산사가 발행한 빨치산 신문이다. 등사판 7~9단 1~2면으로 발행되었다. 1951년 7일분(1951.5.5, 5.30, 6.10, 7.25, 9.25, 11.24)이 확인된다. 안병화 등이 지휘한 경남인민유격대는 1950년 9월 29일 조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신문』은 농민위원회 명의로 간행된 빨치산 신문이다. 북조선농민동맹의 『농민신문』과는 다른 신문이다. 등사판 6단 2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간호(1951.4.10)는 “미해방지구 인민들”에게 보내는 김일성의 발언을 1면에, “남반부 형제자매들”에게 보내는 박현영의 발언을 2면에 게재하고 있다. 홍길동부대, 양산, 울산, 밀양 등이 언급된 것으로 미루어 경남지역 빨치산 신문으로 추정된다. 전선이 38선 인근에서 교착상태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남한농민들을 선동해 제2전선 구축을 목표로 간행한 신문이다. 모두 10일분(1951.4.10, 4.25, 5.10, 5.20, 6.1, 6.10, 6.20, 7.5,

7.15, 8.5)이 확인된다.

『뉴스』는 경남로동신문사가 간행했다. 현재 제31호(1951.5.10)가 남아 있다. 등사판 2단 1면으로 간행되었으며, 북한군 소식, 국내 소식, 국제 소식을 담고 있다.

『덕유산 승리의 길』은 조선인민유격대 남부총대 92사단 기관지로 발행소는 덕유산승리의길사이다. 남부군의 『승리의 길』 제호에 “덕유산”을 붙인 것이다. 이와 동일하게 『회문산 승리의 길』이 발행되었다. 제2호(1951.10.20)가 남아 있는데, 김일성의 발언을 표제로 넣었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드리는 메시지”(1951.10.13. 조선로동당 조선인민유격대 남부총대 92사단당 지도기관선거를 위한 대표회대표 일동) 등을 담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여순병란 3주년을 맞는 22사단 작전과장 정○기의 회고록 등을 수록하고, 백야산-덕유산이 언급된 것으로 미루어 전남 빨치산으로 판단된다.

『돌진』이라는 제호를 가진 문건은 3종류가 남아 있다. 그중 하나가 거제도포로수용소에서 발행된 『돌진』으로 친공포로 선전물이다. 민주청년동맹원 신고산지도위원회 기관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필사 8쪽 1개 호(일자미상)가 제작되었다. 민청원들의 사상교육을 강요하는 내용이다.

『로령로동신문』은 로령로동신문사가 발행주체로 되어 있다. 타블로이드관형을 2면으로 분할해 구성한 단면 등사판이다. 1951년 1일분(1951.2.25)이 확인된다. 발행주체 및 지역을 특정할 수 없다.

『묘향산돌진』은 거제도포로수용소 친공포로 선전물이다. 조선민주동맹원 묘향산지도위원회 기관지로 표기되어 있으며, 발간사가 있으므로 창간호(1952.9.25)로 볼 수 있다. 필사 2면으로 제작되었으며, 골수 공산주의 지하 민청원들과 비밀리 돌려보기 위해 3번 접은 상태로 유통시킨 것으로 보인다.

『무등산빨찌산』은 무등산 빨찌산사가 간행한 빨치산신문이다. 호외

(1951.2.24) 한 호가 확인된다. 2면 등사판 신문이지만, 제2면은 결락되었다. 2월 18일 평양발 스탈린과 프라우다지의 대답을 호외로 신고 있다.

『민주청년』은 거제도포로수용소 친공포로들의 간행물이다. 청색 잉크 필사본으로 작성했으며, 제32호(일자미상), 주간지로 명시되어 있다.

『백운로동신문』은 백운로동신문사가 발행주체로 되어 있다. 제6호(1951.8.1), 제9호(1951.9.1)로 미루어 1951년 초반에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10일 간격으로 한 호씩을 발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백운은 전남 광주시 백운동이 아니라 전남도당 동부지구 백운산(도당책 김선우 검임) 혹은 빨치산 남부군단 산하 백운산에서 활동하던 남부군 11연대를 의미한다.

『별』은 서울시 종로 별社를 발행처로 하며, 발행 겸 인쇄인 홍동일(洪東一), 편집국장 이사광(李思光)으로 표시하고 있다. 1949년 9~10월 6개 호(1949.9.7, 9.21, 9.28, 10.5, 10.12, 10.19)가 남아 있다. 좋은 지질의 종이에 선명한 인쇄판형이다. 7단 조판을 하고 있는데 1면은 A4 판형, 2~3면은 통합된 A3판형, 4면은 다시 A4판형을 사용하고 있다. 남로당 해주인쇄소에서 인쇄한 것으로 추정되며, 1949년 해주를 중심으로 한 남로당 지도부의 대남공작의 실태를 보여주는 인쇄물이다.

『불갑산 빨치산』은 불갑산빨치산사가 간행한 빨치산 신문이다. 제11호(1951.1.28), 제13호(특집호 1951.2.8) 등 2개 호가 있다. 등사 2면 타블로이드판형이다. 전남도당부 산하 불갑산, 영광지역을 거점으로 한 빨치산을 대상으로 한 신문으로 추정된다.

『불길』은 조선인민유격대 불길사단기관지로 발행사는 불길사로 되어 있다. 1951년 9월 25일자 한 호가 남아 있다. 기사에 따르면 추풍령 태평터널 파괴가 나오므로 불길사단은 경상북도 빨치산으로 추정된다.

『붉은별』은 경남지구인민유격대 제7군단보로 표기되어 있다. 경남지구 인민유격대의 기관지이다. 제7군단은 한국전쟁 발발 직전 남한유격

총책으로 임명된 남도부(본명 하준수)가 지휘하는 빨치산부대였다. 이들은 1950년 6월 24일 양양에서 LST를 타고 6월 25일 오전 9시 강원도 주문진에 상륙한 후 태백산맥을 타고 경북으로 월남했다. 7군단, 766부대, 남도부부대 등으로 불렸다. 『붉은별』 기사에는 제7군단을 동해남부지구당·동해남부전구인민유격대로 묘사하고 있다. 제1호(1951.4.15), 제2호(1951.5.5), 제3호(1951.5.5), 제5호(1951.5.25), 제12호(1951.8.25) 등 총5개 호가 남아 있다. 등사판 1면 혹은 2면 타블로이드판이다.

『빨찌산』이라는 제호의 빨치산 신문은 두 종이 있다. 첫째 『빨찌산』은 광주시 전남빨찌산사를 발행소로 한 빨치산 신문이다. 화선지류의 한지에 철필 등사판으로 인쇄한 타블로이드판형이다. 부분 채색인쇄로 2면을 발행했다. 현재 제4호(1950.11.7), 제25호(1951.4.10), 제32호(1951.6.15), 제38호(1951.8.15), 제42호(1951.9.25) 등 5개 호수가 남아 있다. 전남도당은 1950년 10월 5일 인민유격대 전남총사령부 및 6개 지구 창설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해 지하당 및 빨치산 체제로 재정비했다. 『빨찌산』은 이 과정에서 발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빨찌산』은 전라북도 빨찌산총사령부 기관지로 발행되었다. 제호와 제호 박스를 붉은색으로 인쇄해 간행했다. 5단 등사판 2면으로 간행되었다. 이현상은 1950년 11월 강원도 후평리에서 남반부 인민유격대의 통일적 지도를 맡고, 지리산으로 남하했다. 이들은 1950년 12월 말 조선인민유격대 남부군으로 재편되었다. 1951년 7월 6개 도당회의를 개최하고, 전북도당은 전북유격대를 조직(사령관 방준표)했다. 이 『빨찌산』은 제5호(1951.1.1), 제6호(1951.1.8), 제8호(1951.1.18) 등 3개 호수가 남아 있다.

『선봉』은 양산군당이 발행한 빨치산 신문이다. 창간호(1950.12.1)가 남아 있다. 경상남도 빨치산 간행물 가운데 도당이 아닌 군당 차원에서 간행한 것으로서 특색이 있다. 등사판 1면으로 간행되었으며 상태가 좋지

않다. 동일한 한문 제목 『先鋒』이라는 제호로 간행된 중국인민지원군 제 27군 정치부가 간행한 잡지도 존재한다.

『속보』는 조선인민유격대 전남지대가 발행한 빨치산 신문이다. 제8호(1951.11.14)가 남아 있다. 1면 4단에 간단한 빨치산 소식을 담고 있다. 광주·화순을 기습한 김용길부대, 백아산 일대의 정황을 담고 있다. 『속보』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조선인민군 신문들이 있는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이 간행한 『속보』와 825군부대(12사단)이 간행한 『속보』 등 군사신문이 존재한다.

『승리의 길』이라는 제호의 빨치산 신문으로 여러 종류가 남아 있다. 첫 번째 가장 유명한 『승리의 길』은 조선인민유격대 남부군기관지로 승리의길사가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현상이 지도한 남부군의 기관지이며, 이현상은 로명선이라는 가명으로 등장한다. 가장 많은 호수가 남아 있는데, 1951년 2월부터 1952년 9월까지를 포괄한다. 첩필 등사판으로 간행되었지만 초기에는 상당히 좋은 등사판으로 간행되었으며, 이후 한국군경의 토벌로 빨치산이 소멸되기 시작하자 인쇄물의 상태가 조악해졌다. 현재 남아 있는 호수는 다음과 같다. 제6호(1951.2.15), 제7호(1951.2.28), 제8호(1951.2.20), 제9호(1951.4.26), 제10호(1951.5.5), 제11호(1951.6.10), 제12호(1951.7.5), 제13호(1951.8.5), 제14호(1951.8.25), 제16호(1951.9.6), 제17호(1951.9.16), 제18호(1951.9.26), 제18호(1951.9.26), 제19호(1951.10.6), 제20호(1951.10.11. 2부), 제21호(1951.10.24.), 제22호(1951.10.28. 2부), 제23호(1951.11.3. 3부), 제24호(1951.11.10. 2부), 제25호(1951.11.11. 2부), 제26호(1951.11.17), 제27호(1951.11.23), 제28호(1951.12.28), 제29호(1952.1.20), 제30호(1952.2.20), 제31호(1952.3.21.), 제32호(1952.4.13), 제33호(1952.4.23), 제34호(1952.4.29), 제35호(1952.5.5), 제36호(1952.5.26), 제37호(1952.6.5), 제38호(1952.6.23), 제39호(1952.7.6), 제40호(1952.7.7), 제41호(1952.7.8), 제42호(1952.7.17), 제43호(1952.7.26), 제44호

(1952.8.10), 제45호(1952.8.20), 제46호(1952.9.8),

두 번째 『승리의 길』은 대구시 서문로 승리일보사가 발행한 것이다. 제22호(1951.12.27), 제28호(1951.1.20), 제31호(1952.1.31)가 남아 있다. 1951년 12월의 시점에서 대구에서 빨치산 신문을 간행했을 가능성은 없다. 대구·경북지역 빨치산들의 산중 간행물이었을 것이다. 제호로 『승리의 길』을 사용한 것은 남부군 소속 부대들의 공통된 특징이었는데, 이외에도 『덕유산 승리의 길』 『회문산 승리의 길』 등을 제호로 한 빨치산 신문들이 남아 있다.

『앞으로』라는 제호의 빨치산 신문은 2종류가 남아 있다. 첫째 『앞으로』는 동부지구당·동해남부지구당 명의로 간행된 경남 빨치산 신문이다. 동부지구당 명의로 간행된 것은 제15호(1950.12.20. 1면), 제16호(1950.12.31. 2면), 동해남부지구당 명의로 간행된 것은 제35호(1951.7.5. 1면), 제37호(1951.7.25. 2면) 등이다. 한국전쟁기 양양에서 LST를 타고 주문진에 상륙한 남도부부대(일명 제7군단, 766부대)는 경남으로 이동하면서 동해남부지구당·동해남부전구인민유격대로 묘사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 제37호에 「조선인민해방투쟁사(Ⅲ)」이 수록되었는데, 2-③조선공산당의 창건과 조선민족해방투쟁에 있어서의 그의 영도적 역할, 3.국외망명객들의 두 조류와 김일성장군님의 항일무장투쟁으로 국내외 공산주의 운동을 다루고 있다. 국외에서는 조선의용군·독립동맹과 김일성항일무장투쟁을 함께 다루고 있다.

둘째 『앞으로』는 락동강을 발행소로 하고 최기성이 주필인 전선신문이다. 제21호(1951.3.24)가 남아 있는데, 1대대 3중대 2소대의 고양방어전투를 다루고 있다. 등사판의 상태나 기사 내용으로 미루어 북한군 사단급 이하의 모사단 모연대가 발행한 전선신문으로 생각된다. 경기도 문산-고양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19사단이었을 가능성이 높다.³³⁾

『유격전선』이라는 제호의 빨치산 신문은 모두 4종이 확인된다. 첫 번

째 『유격전선』은 제3유격지대 기관지로 경북에서 간행된 것이다. 제11호(1951.2.13? 낙장), 제20호(1951.2.17. 낙장), 제21호(1951.2.21), 호외(1951.2.22), 제23호(1951.2.27), 제24호(1951.3.4), 제25호(1951.3.7), 제26호(1951.3.8), 제32호(1951.12.11), 제34호(1951.12.25), 일자미상 등 11개 호가 남아 있다. 갱지에 붉은 빛 감도는 잉크로 등사한 단면 A4판형이다. 1951년 초 북한은 유격대 재편에 대한 「적후에 있는 유격대들의 활동을 확대 발전 하는데 대한 명령(최고사령부 명령 002호)」(1951.1.2)을 내렸고, 이에 따라 남한 내 지방당은 군사활동 중심의 8개 지대 유격대로 재편되었다. 도당위원장 박종근을 중심으로 경북도당은 이에 따라 1951년 2월부터 경북도당을 제3지대로 개편하기 시작했고, 강원도에서 인민군 제10보충사단을 만나 정치공작원 70명을 인계받았다. 1951년 2~3월 『유격전선』의 기사들은 이러한 경과를 보여주고 있다. 최고사령관 명령 002호, 10보병사단의 전과 등이 게재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유격전선』은 충남유격대 기관지로 추정되는데 판권에 ‘6, 2 지대 및 충남유대 기관지, 대전시’로 표기되어 있다. 인민유격대 제6지대, 제2지대 및 충남유격대 기관지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제1호(1951.10.8) 한 호가 남아 있다. 11단 2면 등사판으로 간행되었다.

세 번째 『유격전선』은 조선빨찌산 독립○지대가 발행한 것이다. 지대 명과 활동지역은 미상이다. 제3유격지대 및 충남유격대의 『유격전선』과는 다른 제호 및 판형을 보여주고 있다. 제15호(1951.4. 일자미상)이 남아 있다. 아래의 929빨찌산병단을 의미하는 조선빨찌산 독립6지대일 가능성이 높다.

33)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군사편찬연구소(박동구) 역, 『중국군의 한국 전쟁사 2』,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5), 399~403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8): 중공군의 총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11), 328쪽.

네 번째 『유격전선』은 929빨치산병단 기관지로 제6호(1950.12.15), 제7호(1950.12.21)가 선별노획문서 no.202021에 남아 있다. 등사판형이며 제6호는 1쪽, 제7호는 2쪽이다. 929빨치산병단은 윤상철이 사단장으로 지휘하는 부대로 조선빨치산 독립6지대를 의미한다. ‘병단’을 자처한 것이 이 부대가 1949~1950년 북한에서 남파된 빨치산부대의 맥락을 계승했기 때문일 것이다. 1949년 6월초 김달삼·남도부의 3병단이 오대산지구로, 1949년 8월 이호제의 제1병단이 태백산·소백산지구로 남파된 이후, 1950년 3월 김무현·김상호와 함께 윤상철은 부대원 1천여 명을 이끌고 남파되었다. 윤상철은 1950년 9월 29일 퇴각하는 의용군을 중심으로 제929부대를 만들었고, 이 부대는 929빨치산병단으로 호칭되었다. 윤상철은 1952년 2월초 조선로동당 정치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입북을 명령받았으나 사망했다. 선별노획문서에 929빨치산병단 관련 문서들이 상당수 남아 있다.³⁴⁾

『유치빨찌산』은 전남 유치빨치산사가 간행한 빨치산 신문이다. 기사에 따르면 조선인민유격대 전라남도 장흥지구사령부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예하에 17연대, 3연대가 소속되어 있다. 9.28수복 이후 전남도당은 인민유격대 전남총사령부 및 6개 지구 창설을 결정했고, 유치(유치내산)에 1개 지구가 설치되었다. 유치지구책은 유기남으로 알려져 있다. 등사

34) 「929 빨치산 병단 사령단 윤상철이 독립 3부대 참모장 양승호에게」(RG 242, Captured Enemy Doc, North Korean Documents, Entry UD 300-C, Doc. no.202813); 「사업총결보고」(1950.11.22, 929부대 참모부)(Doc no.205166); 「전투력향상 및 그의 경상적 유지대책에 관하여」(1951.2.24, 최고사령부 유격지도 처처장 배철)(Doc. no.205170); 「훈장수여자 명단제출에 관하여」(1951.1.25, 유성철)(Doc. no.205170); 「기술인원 및 각종 전투기재 배당에 관하여」(1951.1.25, 유성철)(Doc. no.205170); 「인원배치 및 전투기재 배당표」(1951.1.25, 배철, 6지대)(Doc. no.205170); 「배철-6유격독립지대장」(1951.1.25, 윤상철)(Doc. no.205170); 「전투보고」(1951.3.17~1951.4.12, 조선빨치산 독립 6지대 지대장 윤상철)(Doc. no.205182); 「929빨치산병단 참모부 사업총결보고」(11.22-12. 4)(Doc. no.205171)

판 2면으로 간행되었으며, 제26호(1951.7.1)가 남아 있다.

『전남빨찌산』은 광주시 전남빨찌산사를 발행소로 했다. 화선지류의 한지에 등사한 2면 타블로이드판이며, 부분적으로 노란색·붉은색을 사용했다. 채색은 『전남빨찌산』이 도당 수준의 빨찌산신문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1950년 10월 인민유격대 전남총사령부가 조직될 당시 전남도당 부위원장 김선우가 총사령관을 맡았다. 현재 제4호(1950.11.7), 제25호(1951.4.10), 제32호(1951.6.15), 제38호(1951.8.15), 제42호(1951.9.25)가 남아 있다.

『전북민주녀성』은 전주시 전북민주여성사가 발행한 것이다. 제2호(1951.9.20)가 남아 있다. 빨찌산 간행물 가운데 여성단체의 것은 매우 희귀한 것이다. 조선로동당 전북도당에서 당의 조직복구와 활동 강화를 위해 여성을 대상을 한 선전물을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진』은 거제도포로수용소 친공포로 선전물이다. 조선로동당 묘향산 지도위원회 기관지로 표시되어 있다. 위의 『묘향산돌진』과 마찬가지로 거제도포로수용소 내 지하조직 선전물이다. 『묘향산돌진』이 민청 기관지라면 『전진』은 로동당 기관지인 셈이다. 1952년 9월 15일 한 호가 있다. 수기로 작성한 4면 신문의 형태를 띠었다. 1면 위에 회람의 순서를 “1나무 9.19~9.22까지, 2나무 9.23~9.27까지, 취사부 9.28~29까지”로 표기하고 “보관과 기간 엄수할 것”이라고 적었다. 수용소 내에서 비밀회람한 비밀자료인 것을 알 수 있다.

『전투문학』은 조선빨찌산 독립제6지대 정치부선전부가 간행자로 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빨찌산 독립제6지대는 윤상철이 지휘하는 929빨찌산병단을 의미한다. 제5호(1951.6.3)가 남아 있다. 「문학의 사상성과 예술성」, 「빨찌산생활은 곧 예술이다」는 기사 제목 및 구호와 함께 「동지에」(심재근), 「행군」(최용석), 「상처」(김상훈) 등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조국을위하여』는 부산시 조국일보사를 발행지로 한 빨치산 신문이다. 2면 등사판으로 간행되었으며, 창간호(1951.12.22)가 남아 있다. 홍길동부대, 부산·대구, 울산·양산 지역의 빨치산 활동을 기사로 게재하고 있으므로 부산·경남지역 빨치산 신문으로 추정된다.

『충남민청』은 충청도 민청·군단민청 기관지로 표시되어 있으며, 책임주필은 박설민이다. 기사에 따르면 조선민주청년동맹 충청남도조직위원회 명의를 표기하고 있으므로, 실재하는 조직이 아니라 조직위원회인 것을 알 수 있다. 군단은 충남유격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7호(1951.3.30) 한 호가 남아 있다.

『통신』은 조선빨찌산 독립제6지대 정치부가 간행한 것이다. 조선빨치산 독립제6지대는 윤상철이 지휘하는 929빨치산병단을 의미한다. 제2호(1951.1.24), 제4호(1951.1.27) 2호가 있다. 주로 평양 등 북한소식을 전하고 있다.

『투보』는 전북 남원군 빨찌산사령부를 발행소로 하고 있는 빨치산 신문이다. 2면 등사판으로 간행되었으며, 제3호(1951.6.15), 제4호(1951.6.22), 제5호(1951.6.29)가 남아 있다. 북한은 남한 내 당 조직과 유격대 조직의 방향을 둘러싸고 1951년 내내 혼란스런 입장이었다. 최초에는 1951년 초 유격지대로의 지편 결정[「적후에 있는 유격대들의 활동을 확대 발전하는 데 대한 명령(최고사령부 명령 002호)」(1951.1.2)]을 내렸지만, 1951년 하반기에는 5개 지구당 조직과 유격지대의 중대단위 개편으로 전환[「미해방지구에 있어서 우리 당사업과 조직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정치위원회 94호 결정)」(1951.8.31)]했다. 북한의 명령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남한 당원들에게 전달되기까지 당연히 수개월 내지 1년의 시간 지체 현상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전북 남원군 빨찌산들이 독자적으로 발행한 신문으로 판단된다.

『호소문』은 거제도포로수용소 제3병원 위원장 명의로 된 필사 1쪽 문

건(1952.10.4)이다. 거제도포로수용소에서는 친공포로들이 다수의 호소문을 작성한 바 있다. 「거제도인민군포로장병들의 호소문」(1952.5.23)은 총 6223명이 서명했다며 미군의 포로학대에 항의하는 호소문을 제출한 바 있다. 「호소문」(친애하는 전체 군무자들이여!) 「호소문」(27사단 정치부) 등의 다양한 호소문이 북한노획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회문산승리의길』은 빨치산 남부군의 『승리의 길』의 회문산 지역판이다. 전북 회문산 승리의길사가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2면 등사판형으로, 제4호(1951.10.2)가 남아 있다.

3. 한국전쟁기 북한군 군사신문류

북한의 언론사에 따르면 1948년 간행된 『조선인민군』을 필두로 한국전쟁기 다수의 연합부대에서는 『인민의 아들』(1951.4), 『인민공군』(1951.8), 『전위』(1953.6) 등 여러 가지 신문들이 새로 발간되었으며, 군부대에서는 『투쟁』을 비롯한 여러 종의 전투속보들이 발간되었다.³⁵⁾ 그 외에 군사잡지 『군사지식』이 강화되었다. 이외에도 한국전쟁기 다수의 군단·사단급 단위에서 다수의 군사신문·전선신문이 간행되었다. 총사령부 및 상급부대의 명령·상황을 전달하는 한편 단위 부대의 전공과 결의를 다지기 위한 정보·선전지로서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근위』는 북한군 제655군부대 정치부가 발간한 군사신문이자 전선신문이다. 상부의 명령과 부대의 전공 등을 전하는 소식지의 역할을 했다. 655군부대는 6사단의 대호다. 등사판으로 1면 혹은 2면으로 간행되었으며, 인쇄상태는 양호하다. 제156호(1951.8.15), 호외(1951.8.15), 제157호(1951.8.16), 제158호(1951.8.26), 제159호(1951.8.29), 제160호(1951.8.31),

35) 김영주·이범수, 『북한언론의 이론과 실천』, 181~182쪽.

제164호(1951.9.9), 제165호(1951.9.10), 제168호(1951.9.15), 제171호(1951.9.25) 등이 있다.

『돌진』은 세 종류가 남아 있다. 첫 번째 『돌진』은 오대산 정치부가 발행한 것으로 오대산은 2사단의 대호이다. 전선신문의 일종으로 등사판 1면으로 간행되었으며, 제7호(1951.1.31), 제8호(1951.1.31) 2개 호가 남아 있다. 두 번째 『돌진』은 235정치부가 간행한 군사신문이자 전선신문이다. 235부대는 2사단의 대호이다. 2사단은 오대산과 235라는 대호로 전선신문을 발행한 것이다. 호외(1951.6.11) 한 호가 남아 있는데, 제4연대 제6연대의 전과를 전달하고 있다. 세 번째 『돌진』은 위에서 살펴본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발행된 친공포로 선전물이다.

『민청생활』은 북한군 제327군부대 정치부가 발행한 군사신문이자 전선신문이다. 327군부대는 5군단의 대호이다. 1950년 10월 총정치국이 만들어지고 난 뒤 북한군 내에 정치부가 조직되었으며, 이들의 주요 업무는 예전 내무성 문화부가 담당하던 사상·문화교양이었다. 군단 정치부가 민청원과 민청조직을 관리했음을 보여준다. 제3호(1951.2.27)가 남아 있으며, 이로 미루어 1951년 초반에 군단 정치부의 『민청생활』 간행과 민청조직 관리가 본격화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보도』는 북한군 제327군부대 정치부가 발행한 군사신문이자 정치신문이다. 주로 총사령부의 보도와 해당부대의 전공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다. 327군부대는 5군단의 대호이다. 제39호(1951.4.24), 제40호(1951.4.24), 제46호(1951.5.12) 3개 호가 남아 있다.

『보위』는 두 가지 판이 발행되었다. 첫 번째 『보위』는 내무성 문화국이 발행한 것이다, 책임주필은 정청산으로 되어 있다. 5단 4면 타블로이드판형으로 인쇄되었다. 남아 있는 신문의 간기로 미루어 일간신문으로 판단된다. 평양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좋은 인쇄품질에 질 좋은 종이를 사용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제101호(1950.6.27), 제102호(1950.6.28),

제103호(1950.6.29), 제106호(1950.7.2), 제115호(1950.7.11.), 제119호(1950.7.15), 제125호(1950.7.21), 제126호(1950.7.22), 제127호(1950.7.23), 제128호(1950.7.25), 제132호(1950.7.29), 제133호(1950.7.30), 제134호(1950.8.1), 제135호(1950.8.2), 제136호(1950.8.3), 제137호(1950.8.4), 제138호(1950.8.5), 제139호(1950.8.6), 제140호(1950.8.8), 제141호(1950.8.9), 제142호(1950.8.10), 제143호(1950.8.11), 제144호(1950.8.12), 제146호(1950.8.14), 제147호(1950.8.15), 제148호(1950.8.16), 제149호(1950.8.17), 제150호(1950.8.18), 제151호(1950.8.19), 제152호(1950.8.20) 등이다. 제101호로 역산해보면 1949년경에 신문이 창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위』라는 제호에서 알 수 있듯이 내무성의 경비·보안업무를 염두에 둔 신문이었으며, 내무성 산하 기관·조직·간부·성원들을 독자로 한 대내 신문으로 판단된다. 1면 하단에 “대외에 내가지 말 것”이라는 경고문구가 있으므로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내부 간행신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구성과 내용은 일반적인 북한 로동당·인민위원회·군사신문 등과 큰 차이가 없다.

두 번째 『보위』는 해방지구관으로 1950년 8월 5일 창간되었다. 책임주필은 정준기, 내무성 문화국이 발행처로 되어 있다. 격일간 인쇄판 타블로이드 2면으로 발행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제1호(1950.8.5), 제2호(1950.8.7), 제3호(1950.8.9), 제4호(1950.8.11), 제5호(1950.8.13), 제6호(1950.8.15), 제7호(1950.8.17), 제8호(1950.8.19), 제9호(1950.8.21), 제10호(1950.8.23), 제11호(1950.8.25), 제12호(1950.8.27), 제13호(1950.8.29), 제14호(1950.8.31), 제15호(1950.9.2), 제16호(1950.9.4), 제17호(1950.9.6), 제18호(1950.9.8), 제19호(1950.9.9), 제20호(1950.9.10), 제21호(1950.9.12) 등이다. 인쇄품질과 종이질, 판형과 구성 등으로 미루어 역시 평양에서 인쇄된 것으로 판단된다.

『복수의불길』은 685군부대 정치부가 간행한 전선신문이다. 제1호(1951.4.20)가 발견된다. 타블로이드판 단면이며 국한문혼용 세로쓰기다.

기사를 보면 327군부대 군단장 방호산, 군사위원 윤공흠, 정치부장 김강, 참모장 심청이 32사 39련대 2대대 중기중대 산양군조 사수 심정섭에게 보내는 축하문을 담고 있다. 때문에 685군부대는 327군부대(5군단) 산하 제32사단으로 추정된다.

『소보』는 3군단(제259부대) 정치부가 발행한 전선신문이다. 3군단장은 개전초기 105땅크여단장을 맡았던 류경수였다. 등사판 1면으로 간행되었고, 간단한 전선소식과 부대전과를 담고 있다. 제14호(1951.1.1), 제18호(1951.1.13), 제19호(1951.1.16), 제26호(1951.2.27), 제27호(1951.3.1), 제30호(1951.3.17), 제32호(1951.3.23), 제33호(1951.3.26), 제34호(1951.3.28), 제35호(1951.3.30) 등이 북한노획문서에서 확인된다.

『속보』라는 제호의 군사신문은 3종류가 있다. 첫 번째 『속보』는 조선 인민군 총정치국이 간행한 군사신문이자 전선신문이다. 총사령부 차원의 중요 속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32호(1950.11.12), 제33호(1950.11.13), 제34호(1950.11.14) 등 3개 호수가 남아 있다. 좋은 인쇄품질에 지질을 사용해 한글세로쓰기 2단 양면으로 인쇄되었다. 조선 인민군 총정치국은 9.28 이후 인민군 내에 당단체를 조직하고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10월 초이래 박헌영이 초대 총정치국장을 맡았다. 일간으로 발행된 사실과 총정치국의 설치시기를 염두에 둘 때 1950년 10월말 경부터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³⁶⁾

두 번째 『속보』는 825군부대 정치부가 발행한 군사신문이다. 825군부대는 12사단으로 근위 칭호를 받은 사단이다. 대외비밀로 명기되었으며, 등사판 2면으로 간행되었다. 제98호(1951.4.5), 제99호(1951.4.5), 사단열성자대회특간호(1951.4.16) 등 3개 호수가 남아 있다.

³⁶⁾ 김일성, 「인민군대 내에 조선로동당 단체를 조직할데 대하여(1950년 10월 21일)」, 『김일성저작집』 제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148쪽; 고재홍, 「6·25전쟁기 북한군 총정치국의 위상과 역할」, 『군사』 53집 (2004).

세 번째 『속보』라는 명칭의 조선인민유격대 전남지대가 간행한 빨치산신문도 존재한다. 『속보』 제8호(1951.11.14)가 확인된다.

『승리』는 695군부대 정치부가 발행한 전선신문이다. 제3호(1950.12.10) 한 호가 남아 있으며, 기사 내용 중 1950년 11월 23~24일간 가평지구전투에 참가한 군단 예하 부대이다. 가평전투에 참가한 것은 북한군 2군단, 5군단의 일부였다.³⁷⁾ 이 시점에서 제5군단은 6사단, 12사단, 24사단, 38사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제2군단은 유격부대로 제2전선을 맡았다.³⁸⁾ 때문에 6사단(655군부대), 12사단(825군부대) 외에 대호가 확인되지 않는 24사단, 38사단 중 하나였을 것이다.

『승리를위하여』는 5종류가 남아 있다. 첫 번째 『승리를위하여』는 조선인민군 전선신문이다. 책임주필은 김승규·김명덕·문봉환이 맡았으며, 12단 타블로이드판으로 양면에 인쇄되었다. 제30호(1950.7.11)부터 제149호(1951.9.10)까지 상당량이 남아 있다. 확인되는 호수는 제30호(1950.7.11), 제33호(1950.7.13), 제34호(1950.7.14), 제35호(1950.7.15), 제37호(1950.7.15), 제38호(1950.7.18), 제39호(1950.7.19), 제40호(1950.7.20), 제45호(1950.7.25), 제48호(1950.7.28), 제52호(1950.8.1), 제54호(1950.8.3), 제55호(1950.8.4), 제56호(1950.8.5), 제61호(1950.8.10), 제64호(1950.8.13), 제65호(1950.8.14), 제66호(1950.8.15), 제68호(1950.8.17), 제69호(1950.8.18), 제71호(1950.8.20), 제93호(1950.9.11), 제120호(1951.4.25), 제121호(1951.4.27), 제122호(1951.4.28), 제123호(1951.4.29), 제125호(1951.5.1), 제126호(1951.5.3), 제127호(1951.5.5), 제131호(1951.5.9), 제132호(1951.5.10), 제133호(1951.5.11), 제138호(1951.8.30), 제142호(1951.9.3), 제149호(1951.9.

³⁷⁾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군사편찬연구소(박동구) 역, 『중국군의 한국 전쟁사 2』, 131쪽.

³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7): 중공군 참전과 유엔군의 철수』,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10), 280쪽, 283쪽.

10), 제153호(1951.9.14) 등이다. 제30호를 기준으로 보면 1950년 5월경에 창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전쟁 개전을 준비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승리를위하여』는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문화훈련국에서 발행한 것이다. 사진화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8면 컬러판으로 제작된 사진화보집이다. 창간호(1950.8.10)와 제2호(1950.8.20)가 남아 있다.

세 번째 『승리를위하여』는 15사단 정치부가 발행한 것으로 제2호(1951.1.7)가 남아 있다. 「우리 조국의 수도 서울시 완전해방!」이라는 기사를 통해 1.4후퇴 직후 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15사단은 3군단(군단장 류경수) 소속이었다.

네 번째 『승리를위하여』는 발행소 오락산, 주필 영석, 그림 박영으로 표기된 등사판 단면 신문이다. 제9호(1951.2.14)에는 연대 민청 제8차위원회, 정치부연대장 사회하에 군관회의를 진행했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연대급 전선신문으로 추정된다. 제12호(1951.2.23)에 김일성이 제1군단장 리권무에게 보낸 축하문을 싣고 있는데 415군부대, 351군부대 비행기산양꾼을 치하하고 있으며, 제18호(1951.3.13)에는 1군단장(169군부대) 리권무가 제415군부대 박성환에게 축하문을 보내고 있다. 제21호(1951.4.4)에서는 우리 부대는 사단장의 48호 전투명령을 받았다고 언급하고 있고, 415군부대 김봉문³⁹⁾·리항래·김용수·리도빈이 82연대 지휘관과 정치일꾼에게 보내는 축하문을 싣고 있다. 415군부대는 북한군 8사단의 대호이다. 이를 종합하면 이 부대는 북한군 제1군단(169군부대) 산하 8사단(415군부대, 사단장 김봉문) 산하인 82연대인 것으로 보인다. 이 부대는 일산, 수리산, 분수리, 대위동에 주둔했다. 제2호(1951.1.24), 제3호(1951

³⁹⁾ 김봉문(金奉文)은 1946년 제1사단 포병연대장, 1948년 포병지휘국장, 1950년 8사단장을 지냈다. RG 242, Captured Enemy Doc, North Korean Documents, Entry UD 300-C, Doc. no.20814, Doc. no.202792.

1.27), 제6호(1951.2.9), 제8호(1951.2.11), 제9호(1951.2.14), 제10호(1951.2.17), 제11호(1951.2.20), 제12호(1951.2.23), 제13호(1951.2.26), 제14호(1951.3.3), 제15호(1951.3.1), 제16호(1951.3.7), 제17호(1951.3.10), 제18호(1951.3.13), 제19호(1951.3.16), 제21호(1951.4.4) 등이 소장되어 있다.

다섯 번째 『승리를위하여』는 북한군 제7보사 2연대 문화부가 발행한 등사판 2면 간행물이다. 1950년 8월 7일자 1호가 있으며 같은 부서가 발행한 1950년 8월 10일자 『승리』 제호의 간행물은 역시 등사판 2면인데 전투소보로 표시되어 있다.

『승리에로』는 775부대 정치부가 간행한 2면 등사판 전선신문이다. 제29호(1951.9.9) 한 호가 발견된다. 방어전투, 778부대, 779부대, 781부대, 783부대, 50보련 등이 거론되고 있으므로 사단급 이상의 부대로 추정된다.

『시시간보』는 조선인민군 제5군단 정치부 발간 전선신문이다. 현재 제7호(1951.1.18), 제16호(1951.2.9), 제18호(1951.2.12) 3호가 확인된다. 제16호는 조선인민군 제5군단 정치부 명의로, 제18호는 327군부대 정치부 명의로 되어 있다. 말 그대로 간단한 전황 소식을 전하고 있다.

『신념』은 거제도포로수용소의 친공포로가 발행한 기관지이다. 백두산 별위원회 기관지로 되어 있으며 1952년 9월 5일, 9월 12일, 9월 12일 3개 호가 남아 있다. A4크기의 종이를 8등분해서 필사로 작성한 형태이다.

『안동』은 북한군 825군부대가 간행한 전선신문이다. 사단열성자대회 특간호(1951.4.16), 제100호(1951.4.17), 제101호(1951.4.22), 제104호(1951.4.26)가 남아 있다. 825군부대는 북한군 제12보병사단(사단장 최아립)이다. 사단장 최아립의 「축하문」에 따르면 『안동』의 전신은 1950년 6월 26일부터 간행하기 시작한 『속보』이며, 『속보』 100호를 기념하기 위해 『안동』으로 개칭한다고 밝히고 있다. 12사단은 1950년 7월말 8월초 안동전투에서 공을 세워 안동12사단이란 칭호를 얻었다.

『인민을위하여』는 조선인민군 제256군부대 민간사업부 발행으로 되어 있다. 제3호(1951.8.7)가 남아 있다. 북한군 군사신문 가운데 민간사업부 혹은 민사담당부서가 발행한 유일한 신문이다. 다루고 있는 내용도 군사적인 소식이 아니라 관할 지역 내 민간인들의 관심사가 중심이다. 1951년도 각급학교 개교 준비사업, 하기작물 현물세, 내금강면당열성자대회, 전재민구제사업, 구제금 등을 다루고 있다. 린계군 양구군 원통 내금강 등의 지명이 등장한다. 256군부대가 어떤 부대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1950년 3~5월 리봉근이 부대장이었다.⁴⁰⁾

『인민의아들』은 조선인민군 병사신문으로 일간의 형태를 취했다. 북한 언론사는 1951년 4월 새로 발간되기 시작했다고 기록했으나,⁴¹⁾ 현재 남아 있는 제58호(1951.5.11)를 참고할 경우 1951년 3월 이전에 발간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1952년도의 제2호(누계413호)(1952.1.3)을 고려하면, 일간지일 경우에도 첫 발행일은 1951년 4월이 아니라 1950년 9월 초순경이 된다.⁴²⁾ 현재 남아 있는 제58호(1951.5.11)에는 제276부대 정치부·책임주필 김학석으로 표기되었는데, 276군부대는 제4군단의 대호이다. 11단 2면 타블로이드판 활판인쇄였으며, 인쇄 상태나 종이질은 전시 상태를 고려할 때 매우 좋다. 제호와 구성, 판형이 동일하므로 최초 제4군단(276군부대)가 간행하던 『인민의아들』이 전시 상황과 필요성을 고려해 조선인민군 차원으로 격상되어 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위』는 북한군 제327군부대 정치부가 간행한 군사신문이자 전선신

40) RG 242, Captured Korean Documents, Entry NM-44 299, SA 2009, Box, 8, Item, 1.8.

41) 김영주·이범수, 『북한언론의 이론과 실천』, 181~182쪽.

42) 일간을 기준으로 1년 365일 중 일요일 52일을 제외하면 최대 313호 발행이 가능하다. 413호에서 일년 313호를 제외하면 100호가 남는다. 1주일에 6호를 발행했으므로 100호를 발행하는데 116일 이상이 소요된다. 이를 종합하면 『인민의아들』의 첫 발행일은 1950년 9월 초순경이 된다.

문이다. 타블로이드 등사판형으로 단면 인쇄되었다. 제327군부대는 방호산이 지휘하는 북한군 5군단의 대호이다. 제15호(1951.4.1), 제15호(1951.4.5), 제23호(1951.5.10), 제41호(1951.8.24), 제42호(1951.8.29), 제44호(1951.9.16)가 남아 있다. 5군단 차원에서 예하 부대원들에게 전하는 소식과 강조할 내용들을 담고 있다. 방역사업, 이(20호) DDT방역, 장티프스 예방, 전투훈련경기대회 결과, 근위6보사의 전과, 적군 소탕 전과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전진』은 14보련 정치부가 간행한 전선신문이다. 타블로이드판형 등사 1면으로 간행되었다. 제19호(1951.2.6) 한 호가 있다. 특별한 내용은 없으며 정치부연대장 리해봉의 이름이 있다.

『전투소보』라는 제호의 신문은 2종류가 있다. 첫 번째 『전투소보』는 7보병사단 정치부가 간행한 등사판으로 제29호(1950.12.4)가 남아 있다. 두 번째 『전투소보』는 발행처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제1호(1950.6.16)가 남아 있고, 절대비밀, 전투소보 책임자 김택용가 명시되어 있다. 아마도 『전투소보』의 원형으로 판단되는데, 북한의 개전을 앞두고 “군사비밀을 엄격히 지키자”는 내용의 단면 기사를 실고 있다.

『전투속보』라는 제호의 신문은 3종류 발견된다. 첫 번째 『전투속보』는 655군부대 정치부가 발간한 것이다. 655군부대는 6사단의 대호이다. 현재 제99호(1951.2.11), 제108호(1951.3.17), 제109호(1951.3.19), 제111호(1951.3.28), 제112호(1951.3.30), 제113호(1951.4.2), 제112호(1951.4.5), 제114호(호소문: 1951.4.5), 제116호(1951.4.16), 호외(1951.4.24), 제126호(1951.5.12)가 남아 있다. 8단 2면 타블로이드 등사판으로 간행되었다.

두 번째 『전투속보』는 제851군부대 정치부 발행 전선신문이다. 851군부대는 7사단의 대호이다. 제1호(1951.2.9), 제2호(1951.2), 제3호(1951.2.12), 제4호(1951.2.13), 제8호(1951.2.18), 제8호(1951.2.19)가 확인된다. 2단 1면 등사판 신문으로 간단한 전황을 담고 있다.

세 번째 『전투속보』는 마차령문화부가 발행한 것이다. 제27호(1950.8.6), 제29호(1950.8.8), 제32호(1950.8.14)가 확인된다. 제27호는 마산·진주 전투에서 미군의 탱크운용을 다루고 있다. 제32호에는 661군부대, 659군부대를 거명했는데, 661부대는 6사단 15연대, 659부대는 6사단 1연대였다. 또한 마산·진주에서 전투를 벌인 북한군은 6사단이었으므로, 마차령은 6사단의 이명(異名) 혹은 사단 내 대호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개전 이후 북한군은 대내외 군사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군 내에서 부대명을 숫자로 표기하고 지휘관들을 대호로 부르는 명령을 내렸다. 북한군 101부대의 극비 No.1 명령 「軍部隊 대호사업에 關하여」(1950년 8월 15일, 제003号)를 보자.

극비 No.1 명령 「軍部隊 대호사업에 關하여」(1950년 8월 15일, 제003号)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民族保衛省 동지의 命令제00632号에 依하여
 本部隊의 대호는 下記와 如히 지적되었으니 本부 각부서 및 管下 區分隊
 에서는 군사비밀을 더-층 엄수하며 우리들의 戰鬥力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미 使用하든 部隊名 16땅크려단을 사용치 말 것이며 규정된 部隊 대호
 를 使用할 것을 命令한다.

記

1. 部隊대호는 101軍部隊이며 公문서 通화 一切 대호로써 使用한다.
2. 本命令은 극비로써 취급할 것이며 部隊대호를 사용치 않고 군사비
 밀을 流설할 條件들이 發生하였을 時에는 이에 對하여 各부대장 및 管下
 區分隊長 동무들이 責任져야 한다.

朝鮮人民軍 101軍部隊

部隊長 김철원

부部隊長 리만원⁴³⁾

즉 16땅크여단을 1950년 8월 15일부터 101부대로 호칭한다는 명령서

⁴³⁾ RG 242, Captured Enemy Doc. North Korean Documents, Doc. no.200640.

이다. 부대장인 김철원(金鐵遠)은 1912년 서울생으로 1938년 중앙육군군관학교 강릉분교를 졸업한 후 조선의용대에 가담했고, 1942년 팔로군 129사에 배속된 인물이다.⁴⁴⁾ 리만원은 101부대 참모장이자 부부대장이었다.⁴⁵⁾

부대만 대호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부대 지휘관들의 명칭도 대호를 사용했다. 북한군 제281군부대는 제19사단인데, 19사단 참모부는 예하부대에 「대호사용에 관한 지령 이첩에 관하여」(1951.2.21)라는 지령을 내리고 있다. 사단지휘부를 포함한 참모부 각부서들의 명칭을 행군 또는 주둔시에 대호를 사용하라고 지령하고 있다.⁴⁶⁾

〈표 3〉 「대호사용에 관한 지령 이첩에 관하여」(1951.2.21)(19사단 참모부)

No	부서및직무	대호	No	부서및직무	대호
1	사단장	금강산	14	간부과	할라산
2	참모장	무궁화	15	정치부	락동강
3	정치부장	소나무	16	정치보위부	두만강
4	포병부사단장	목단화	17	검찰소	청천강
5	후방부사단장	봉선화	18	재판소	림진강
6	정치보위부장	버드나무	19	후방부	대동강
7	검찰소장	잣나무	20	행정경리과	지리산

⁴⁴⁾ RG 242, Captured Enemy Doc, North Korean Documents, Doc. no. 200551 (1950. 7. 9); Doc. no. 200586 (1950.8.15); Doc. no. 200640 (1950.8.15)

⁴⁵⁾ RG 242, Captured Enemy Doc, North Korean Documents, Doc. no. 200552 (1950.8.19) Doc. no. 200586 (1950.8.22); Doc. no. 200640 (1950.8.15)

⁴⁶⁾ 제281군부대 참모부 지령 「대호사용에 관한 지령 이첩에 관하여」(1951.2.21) 제 281군부대 참모장 현규원 통신참모 권균환. RG 242, Captured Enemy Doc, North Korean Documents, Doc. no. 205168. 소련군사고문이 배치되어 있으며, “기가선생”이라는 대호로 불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8	재판소장	박달나무	21	참무부재정과	장백산
9	작전과	백두산	22	공병과	압록강
10	정찰과	묘향산	23	보고수집소	-
11	통신과	태백산	24	고문	기가선생
12	공병과	오대산	25	기무과	기동산
13	대열과	비학산	26	지도과	무동산

출처: RG 242, Captured Enemy Doc, North Korean Documents, Doc. no. 205168.

각 사단 내부에서 지휘·참모부를 다양한 산·나무 이름의 대호로 호칭했을 뿐만 아니라 각 군단·사단·연대들도 이런 산·나무 이름을 대호로 사용했다. 한라산(415군부대: 8사단), 오대산(2사단), 낙동강(19사단), 마차령(6사단), 오락산(8사단 산하 82연대) 등이 사용되었다.

1950년 8월에는 사단 문화부가 간행하던 『전투속보』를 1951년 이후에는 사단 정치부가 발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북한군 내부에 총정치국이 설치된 것과 연결된 조치였을 것이다.

『전투통보』는 655군부대 발간으로 되어 있다. 제36호(1951.3.30) 한 호가 남아 있다. 655군부대는 6사단의 대호이다. A4 사이즈에 등사판 2면으로 제작되었다. 안동 제12보병사단 제30보련대 민청단체에서 발기한 적을 많이 잡기위한 경쟁을 영웅중대 창조경쟁으로 개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의 『전투속보』의 경우처럼 마차령 문화부가 발행한 『전투통보』 제4호(1950.7.3)이 존재한다. 마차령은 제6사단의 이명이며, 북한군 내 총정치국이 당적 지도를 관철하기 이전에는 문화부가 사상교양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총정치국이 등장한 이후 이런 전선신문·군사신문의 발행주체는 해당 부대 정치부로 변경되었다.

『(일간)전화』 조선인민의용군 제1여단 정치부가 발행한 전선신문이다. 편집책임자는 이광섭(李光燮)으로 되어 있다. 10단 타블로이드판 2

면 활판인쇄로 간행되었으며, 제3호(1950.8.1), 제4호(1950.8.2), 제5호(1950.8.3), 제6호(1950.8.4) 등 4개 호가 남아 있다. 북한이 남한 점령지역에서 의용군 동원을 조직적으로 격려·선전하기 위해 제작된 한시적 선전물이다. 의용군 제1여단은 5개 대대, 총 2,500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⁴⁷⁾

『조국과인민을위하여』은 발행소 한라산, 책임주필 홍수일(洪守一)로 명시되어 있다. 북한군 사단급이 간행한 전선신문으로 판단된다. 제30호(1951.4.9)에 따르면 169군부대장 리권무(李權武), 415군부대장 김봉문(金奉文), 백학림(白學林) 등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으며, 임진강 동기방어작전이 언급되고 있다. 169군부대는 1군단의 대호이며, 415군부대는 8사단의 대호이다. 제3호(1950.11.14), 제4호(1950.11.17), 호외(1950.11.17), 제6호(1950.11.23), 호외(1950.11.30), 호외(1950.12.23), 제11호(1951.1.1), 제12호(1951.1.6), 제13호(1951.1.9), 제14호(1951.1.12), 제15호(1951.1.15), 제16호(1951.1.21), 호외(1951.1.26), 제17호(1951.2.1), 제30호(1951.4.3) 등이 확인된다.

『조선인민군』은 1948년 7월 10일 창간된 민족보위성 기관지이다. 『조선인민군』의 전신은 1948년 2월부터 발행되던 『전사』였다.⁴⁸⁾ 책임주필은 오기찬·서춘식·리춘백(李春白)으로 변화했다. 1950년 이래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상당량이 북한노획문서에 들어있다. 9.28수복 이후 북한군 내 노동당 조직이 설립되자, 민족보위성에서 총정치국으로 발행 주체가 바뀌어 총정치국 기관지로 변화했다. 11단 타블로이드판 2면 활판인쇄로 간행되었다.

47) 정병준, 「북한의 남한 점령기 ‘의용군’ 동원과 운용: 의용군명부포로심문조서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46 (2013).

48) 리용필, 『조선신문100년사』, 216쪽.

4. 기타 신문들

『공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가 간행하는 공보이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법령공보』를 간행했으며, 북한정부 수립 후 내각은 『내각공보』를 간행했다. 북한의 입법부가 발행하는 공보였다. 제19호(1952.5.31)가 남아 있는데, 연좌제에 관한 법령을 다음과 공포하고 있다.

「군무자가 반역 또는 탈주범죄를 수행한 경우 그의 가족에게 형사책임을 지움에 관하여」

미 제국주의 침략자를 반대하며 조국의 통일과 자유와 독립을 위한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에서 간첩 파괴분자 등에 대한 인민대중의 예리한 경각성을 높이며 군무자들의 책임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조국에 대한 충성의 정신과 외국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고수하는 애국적 투쟁정신으로 청년들을 교양하는 가족성원들의 책임을 가일층 높일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1조. 군무자로서 적의 편에 넘어가며 기타의 행위로서 조국을 반역하거나 또는 군무를 기피하여 탈주한 경우 그 군무자의 성년가족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조. 탈주한 군무자의 성년가족으로서 탈주 군무자를 은폐하는 등의 협조행위를 하거나 또는 해당 인민정권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두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강량옥
1951년 10월 15일 평양시

『독립』은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총지부가 간행한 주간신문이다. 제352호(1950.12.13), 제353호(1950.12.20), 2개 호가 남아 있다. 이사장 손창희, 총무 김강, 편집 박상렴 김강의 이름이 판권에 나타난다. 『독립』은 해방

후 북한과 연계를 맺었고, 간부로 일했던 이득환·현앨리스·이사민이 월북한 바 있다.⁴⁹⁾

『동북조선인민보』는 1948년 4월 1일 중국 연길에서 창간된 『연변일보』가 1949년 4월 1일 제호를 개칭한 것이다. 중공 연변지방위원회의 기관지로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하고 연변조선족의 민족성·지방성·군중성을 중지(重旨)로 제시하였다.⁵⁰⁾ 제599호(1950.12.5), 제600호(1950.12.6), 제601호(1950.12.7), 제602호(1950.12.8), 제604호(1950.12.10), 제605호(1950.12.11), 제606호(1950.12.12), 제615호(1950.12.21), 제617호(1950.12.23)가 남아 있다.

『반미구국』은 반미구국투쟁동맹 기관지이다. 이 기관 및 신문과 관련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다. 호수미상(1953.4.10), 제12호(1953.4.20), 제13호(1953.5.1), 제15호(1953.5.25) 등 4일 분이 확인된다. 6단 2면 타블로이드 활판인쇄이다. 인쇄상태와 지질로 미루어 북한 정부차원에서 간행한 신문이다. 1953년 이래 본격화된 반제국주의구국투쟁동맹이 반미구국투쟁동맹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대남 선전용 매체로 조선중앙방송 중파 및 단파방송 채널을 관권지에 적어놓았다.

『정세순보』는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조직부 연락과가 발행한 순보(旬報)로 10일에 한차례 발행한 정기간행물이다. 현재 제17호(1948.7.15~7.25)가 남아 있고, 김두봉 북조선로동당 부위원장에게 전달된 것이다. 북조선로동당 최고 수뇌부에게 보고되는 남한 관련 정보요약 보고서이다.

한편 북한노획문서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남한 신문들이 다수 존재한

49) 정병준, 「해제」, 『(미주한인 발행 신문) 독립』, (세종: 국가보훈처, 2017)

50)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해제」, 『동북조선인민보』 제3권(1949.4.1)-제15권(1954.12.31) (춘천: 아시아문화연구소, 1997); 염인호, 『또 하나의 한국전쟁: 만주 조선인의 '조국'과 전쟁』, (서울: 역사비평사, 2010)

다. 그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한다.

『노동자신문』은 남한에서 간행된 주간신문이다. 발행인 정재철(鄭載轍), 편집원 박우승(朴雨升)으로 되어 있으며, 서울시 고시정(古市町) 12번지를 발행소로 표기하고 있다. 고시정은 1946년 10월 1일 서울시의 행정구획명칭 변경으로 중구 동자동(東子洞)이 되었다. 제15호(1946.10.26), 제16호(1946.11.7), 제20호(1947.4.19)가 남아 있다. 11단 타블로이드판 2면 혹은 4면 발행이었으며, 국한문 혼용이다. 남한의 인쇄잉크·용지사정을 반영해 인쇄품질과 종이질질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정재철은 경성콤그룹 대구지역 책임자이자 민전 중앙위원을 지낸 공산주의자로 1948년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을 지냈다.⁵¹⁾ 변우승은 1936년 진주고보를 졸업하고 경성제대 예과에 진학한 후 1939년 경성제대 본과에 입학한 기록이 있다. 조선공산당·남로당 계열의 신문으로 추정된다. 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이 간행하던 『전국노동자신문』과는 별개의 신문이다.

『노력자』는 조성호(趙成鎬)를 발행 겸 인쇄인, 이창식(李昌植)을 편집국장으로 하는 신문이다. 서울시 태평로 노력자사를 발행소로 하고 있다. 1947.5.26. 허가제호256, 1947.9.1. 제3종우편물인가를 받았다고 쓰고 있으나 서울에서 간행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간행된 지하신문이다. 국한문 혼용, 11단 타블로이드판 활판인쇄로 4면을 발행했다. 인쇄품질이 우수하며, 좋은 지질을 사용했다. 간혹 5면, 6면이 있으며, 간기는 5일에 1회씩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대남선전용 지하신문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남로당 해주인쇄소에서 인쇄해 남한 지하조직망을 통해 유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제82호(1949.1.15), 제125호(1949.9.1), 제130호(1949.9.25), 제131호(1949.9.30), 제134호(1949.10.15)가 남아 있다.

51) 강만길·성대경 편, 『한국사회주의인명사전』, 440쪽.

『만세보』는 편집 겸 발행인 곽복산(郭福山), 인쇄인 조한식(趙漢植)이 만세보사에서 간행한 주간신문이다. 서울남대문로 2가 135번지로 되어 있다. 「주간 만세보 창간」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용지난 속에서 일간신문이 채 충분히 손대지 못하는 시사해설 각종논평을 위주로 하는 주간신문 『만세보』는 오는 20일부로 창간호를 발간하리라 한다. 책임위원인 김연만(金鍊萬), 곽복산(郭福山) 양씨며 발행소는 시내 남대문로 2가 135 南漢鰾당 안이다. 또한 이 만세보사에서는 우수한 신문기자를 육성하고자 창설된 조선신문학원의 학생들의 연습을 위하 학원판도 발간할 터이라 한다.”⁵²⁾ 편집과 필진에 중진 약 20여 명을 망라하였다는⁵³⁾ 『만세보』는 1947년 9월 곧 휴간되었고,⁵⁴⁾ 더 이상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제10호(1947.8.11. 해방기념호) 한 호가 남아 있다. 파리에서 귀국한 서영해(徐嶺海)의 인터뷰 「세계정보: 전후의 약소국가 동향」을 싣고 있다. 1930년 이승만의 제네바 외교 당시 조력자로 일했고 해방후 김구계열로 활동했던 서영해는 “고려통신사 경영”자로 “일직이 상해임시정부의 제네바회의 연락원으로서 활약한 적도 있고 지금은 불란서에서 외국기자단의 일원으로 민완을 날리든 분”으로 소개되었다. 윤행중(尹行重)의 「기만에 찬 토지매상(買上)안(하): 토지의 자본화는 농민을 재예속」, 신남철(申南澈)의 「민족문화건설이란 무엇(1)」, 「(대학교수 평판기) 장광설의 분류, 서울대학교수 이병기씨편」, 곽복산, 「혁명기와 신문: 해방전후 신문의 지도성에 대하여 ①」, 김명수(金鳴水)작·길진섭(吉鎭燮)화, 「(단편) 8.15와 소년」 등의 기사가 실렸다. 전반적으로 중도좌파적 성격이 강한 신문으로 추정된다.

『문화신문』은 발행 겸 인쇄인 홍효민(洪曉民), 박동철(朴東喆), 편집인

52) 『자유신문』 1947년 4월 19일.

53) 『동아일보』 1947년 4월 15일.

54) 『동아일보』 1947년 9월 7일.

옥명찬(玉明燦), 서울시 소공동 11 문화신문사에서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신문사(新聞史)에서 해당신문의 정보를 찾을 수 없으며 단명한 것으로 보인다. 국한문혼용, 10단 2면 타블로이드판 활판인쇄로 발행했다. 홍효민은 저명한 좌파 평론가 출신이다. 제7호(1947.7.27)가 남아 있다. 사설 「몽양선생을 봉도(奉導), 조동필, 「불란서혁명에 잇서서 아르만의 사상», 「미소공위에 대한 답신서(1) 민족문화연구소 제출, 「청년예술문화씨-클론: 민애청선전문화부」, 金必, 「좌우잡감(雜感)(2)」, 호일석(胡逸石), 「학도들 행렬에게-몽양선생의 빈소에 모힌 학도들에게 주는 글」 등이 실렸다. 전반적으로 좌파적인 경향이 강하다. 옥명찬은 1946년 5월 9일 발족한 민족문화연구소에 참여했는데, 백남운, 홍기문, 신남철, 정진석, 이청원, 이북만, 윤행중, 홍기문, 김사량, 고찬보, 안막 등 저명한 좌파 지식인들이 참가했다.⁵⁵⁾ 기사를 쓴 조동필도 민족문화연구소 참가자이다. 대구에서 해방직후 창간된 『문화신문』(1945.11.27)도 존재한다.

『전국농민신문』은 전국농민총연맹(전농)의 기관지로 발행인 편집인은 주진경(朱鎭璟), 인쇄인 현동욱(玄東旭), 서울시 소공동 82번지 전국농민신문사가 간행했다. 국한문혼용 11단 2면 타블로이드판 활판인쇄로 간행되었다. 제12호(1946.10.18), 제14호(1946.12.13), 제16호(1947.1.30), 제21호(1947.4.12), 제29호(1947.7.20), 제51호(1948.9.4)가 확인된다. 제51호는 한국정부 수립후 간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설에 해당하는 「주장: 남조선인민대표대회를 경축하며 지지하자!」는 등의 기사가 실린 것으로 미루어 해주에서 간행되어 남한에 배포된 지하신문으로 성격이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

⁵⁵⁾ 「민족문화연구소 발족, 『자유신문』 1946년 5월 9일.

IV. 맺음말 : 북한노획문서 중 북한신문 자료의 중요성과 특징

북한노획문서 중 북한신문자료의 중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희귀본·유일본이다. 북한신문자료는 현재 북한노획문서철 외에
는 국내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본·희귀본이 다수·다량 포
함되어 있다.

둘째 다중성·지역성이다. 북한신문자료는 중앙과 지방의 조선로동
당·인민위원회, 다양한 직종·계층의 다중·다양한 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신문들은 북한의 중앙뿐 아니라 각 지방, 한국전쟁 북한점령지
역의 정치·경제·사회의 역동성을 보여줄 것이다.

셋째 다층성이다. 북한신문자료는 다양한 층위·계층의 목소리를 반
영하고 있다. 다양한 조직과 관련된 직종별 신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급·계층의 현안을 잘 보여주고 있다.

넷째 연대기·현장성이다. 북한신문자료는 연대기적 기초자료이자 신
문이 갖고 있는 기본 속성인 사실 전달의 현장성을 가지고 있다. 매일·
매주 간행되는 신문은 당시의 사실과 현장성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추후
의 평가와 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다섯째 비밀정보의 성격이다. 북한신문자료는 북한의 비밀정보를 담
고 있다. 이 신문자료들이 전장에서 전투 혹은 철수과정에서 노획된 것
이므로 북한이 폐기하거나 공개하지 않기를 원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담
고 있다. 특히 군사 관련 신문들은 내부비밀자료로 작성된 것들이 대부분
이며, 지방에서 발행된 로동당·인민위원회 기관지들도 내부적 비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북한신문자료의 형태적 특징과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첫째 자료의 파편성·분산성이다. 전장에서 우연히 노획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미군과 한국군경이 전장에서 해당 문서를 노획했을 때, 원래 이 문서의 소지자가 의도적으로 문서를 방치하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면 해당 문서는 아주 우연하게, 그리고 노획자의 입장에서 볼 때 운 좋게 획득한 것이다. 때문에 발견되는 자료는 체계적이며 통일적이며, 일련번호를 가진 일관된 자료가 아닌 것이다. 평양의 외무성도서관과 같이 도서관의 책자를 노획한 경우가 아니라면, 북한 관련 당국·조직·소지자가 이동·폐기·은닉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연히 획득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이다. 북한신문자료의 경우 전호, 전량이 남아 있는 경우는 단 한 신문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연히 한 장, 몇 장, 수십 장이 전장에서 노획되는 상황인 것이다.

둘째 자료의 비체계성·비계통성이다. 북한신문자료는 때문에 희귀·유일성, 다중·다양성, 다층성, 현장성, 비밀정보를 담고 있지만, 전체적 상황을 알 수 없는 비체계적이며 비계통적인 성격을 지닌다. 북한신문자료의 출자(出自)와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 곤란한 면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거의 전호가 발굴된 『해방일보』·『조선인민보』의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북한신문자료의 강점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북한신문자료의 연구자료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며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국내 기관이 보유한 북한신문자료는 부분적이며 파편적이고, 기관에 따라 공개하는 방식도 종이문서, 자료집, 웹페이지, 마이크로필름으로 되어 있다. 또한 최소한의 통합목록과 기사색인도 구비되지 않은 실정이어서, 연구자들이 활용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북한노획문서철의 북한신문자료의 존재 방식도 방대한 문서군 내에 개별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기관이나 연구자에 의해

통합 목록이 작성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 자료의 중요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신문자료는 연구자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기 곤란했다.

북한노획문서철 북한신문자료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현재 국내 기관의 제한적·분산적 소장현황과 북한신문자료 자체의 개별적·파편적 산재 양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신문목록·기사목록 작성과 원문입력 및 기사원문 스캐닝을 포함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시급히 필요한 작업이다.

이러한 북한신문자료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해방 직후~한국전쟁 이전 북한 사회연구의 기초자료이다. 북한노획문서철 북한신문자료 데이터베이스는 1945년 이후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 북한사회와 변화를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이 자료들은 평양과 중앙당·중앙정부의 입장과 지방 및 각 직종·계층별 조직에서 제기된 다양한 쟁점·이슈 등을 보여줌으로써,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북한의 지방·직종·계층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한국전쟁기 북한의 점령 정책과 남한사회연구의 기초자료이다. 북한노획문서철 북한신문자료 데이터베이스는 한국전쟁 초기 북한의 남한점령 당시 간행된 다수·다종의 유일본 신문들을 통해, 북한의 남한점령정책의 실체를 보여주는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북한 점령기 점령·체제이식·동원·배제·선전 등에 관한 연구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한국전쟁기 북한의 군사작전과 빨치산 연구의 기초자료이다. 북한노획문서철 북한신문자료 데이터베이스는 한국전쟁기 북한의 군사작전과 군사활동, 군사적 상황·현실을 보여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2000년대 노근리사건이나 보도연맹사건 등에 관한 조사·연구과정에서 북한 군사신문의 중요성·정보가치가 확인된 바 있다.

넷째 한국전쟁기 북한의 전쟁수행과 당·정·사회 연구의 기초자료이다. 북한노획문서철 북한신문자료 데이터베이스는 한국전쟁기 북한의 전쟁수행·전시동원·전시체제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이는 전시기 북한의 전쟁수행은 물론 북한 사회의 일상과 시대적 흐름, 주요 이슈를 연구하는 핵심 연대기 자료가 될 것이다.

■ 접수: 2021년 4월 30일 / 심사: 2021년 5월 24일 / 게재확정: 2021년 5월 27일

【참고문헌】

- 강만길·성대경 편, 『한국사회주의인명사전』,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6.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7): 중공군 참전과 유엔군의 철수』,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10.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8): 중공군의 총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11.
-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목록집』,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6.
- 국토통일원, 『6·25 당시 노획한 북한자료 마이크로필름 목록』, 서울: 국토통일원, 1987.
- 김영주·이범수, 『북한언론의 이론과 실천』, 서울: 나남, 1991.
- 리용필, 『조선신문100년사』, 서울: 나남, 1993.
- 방선주, 『북한논저목록』,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춘천: 아시아문화연구소, 2003.
- 정진석, 『전쟁기의 언론과 문학』, 서울: 소명출판, 2020.
-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군사편찬연구소(박동구)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5.
- 한국연구원, 『소장신문목록 1883~1953』, 서울: 재단법인한국연구원, 1984.
-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빨치산 자료집』 제6·7권 (신문편), 춘천: 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 The National Archives, *Record Group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1941-, Annotated Lists: Records Seized by U.S. Military Forces in Korea*, Washington D.C., 1977.
- 방선주, 「노획 북한필사문서 해제 (1)」, 『아시아문화』 창간호, 1986. 41~156쪽.
- 방선주, 「미국 국립공문서관 소장 RG 242 내 〈선별노획문서〉 조사연구」, 『미국소재 한국사자료 조사보고Ⅲ: NARA 소장 RG242 〈선별노획문서〉 외』, 과천: 군사편찬위원회, 2002. 1~492쪽.
- 이완범, 「해방직후 북한자료 해제1-북한생산 자료」 『북한현대사문헌연구』, 서울: 백산서당, 2000, 75~155쪽.

- 전현수, 「해방직후 북한자료 해제-러시아생산 자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북한현대사문헌연구』, 서울: 백산서당, 2000, 157~198쪽.
- 정병준, 「북한의 남한 점령기 ‘의용군’ 동원과 운용: 의용군명부·포로심문조서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46, 2013, 1~57쪽.
- 정병준, 「한국전쟁기 미군이 노획한 ‘북한노획문서’의 구성과 특징」 『이화사학연구』 62, 2021, 1~42쪽.
- 정병준, 「해제」, 『(미주한인 발행 신문) 독립』, 세종: 국가보훈처, 2017, 1~24쪽.

Introduction of the North Korean newspapers in the Captured Korean Documents in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Jung, Byung-Joon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e captured Korean documents collection at the U. 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is the documents that were captured by the U. S. military forces during the Korean War period. It is in the custody of Record Group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There are over 120 North Korean newspapers in the captured Korean documents.

The North Korean newspapers in the captured Korean documents are consisted of four categories: first, newspapers that were published by North Korean organizations in 1945-1953; second, newspapers that were published in South Korea by the occupation authorities and agencies during the North Korean occupation of South Korea in the early phase of the Korean War; third, North Korean army's military newspapers that were published during the Korean War; and fourth, the other several newspapers.

The major part of the North Korean newspapers includes the Korean Labor Party (KLP) newspapers of center and local provinces, the central and local People's Committee newspapers, combined KLP-People's Committee

newspapers of provinces. It also includes newspapers published by the Soviet authorities in North Korea, partisan newspapers in South Korea, and the Corps-Division level North Korean military newspapers. These North Korean newspapers are very rare and the only remaining ones that contain confidential information to study North Korea and Korean War.

Keywords: The Captured Korean Documents,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Record Group 242, Pang, Sun-joo, North Korean Newspapers.

정병준(Jung, Byung-Joon)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 현대사를 전공했고, 최근에는 미군정기 국대안과 남북한 학계의 재편에 관심을 갖고 있다. 대표 논저로 『몽양여운형평전』, 『우남이승만연구』, 『한국전쟁』, 『독도1947』, 『현앨리스와 그의 시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한반도관련조항과 한국정부의 대응』 등이 있다.